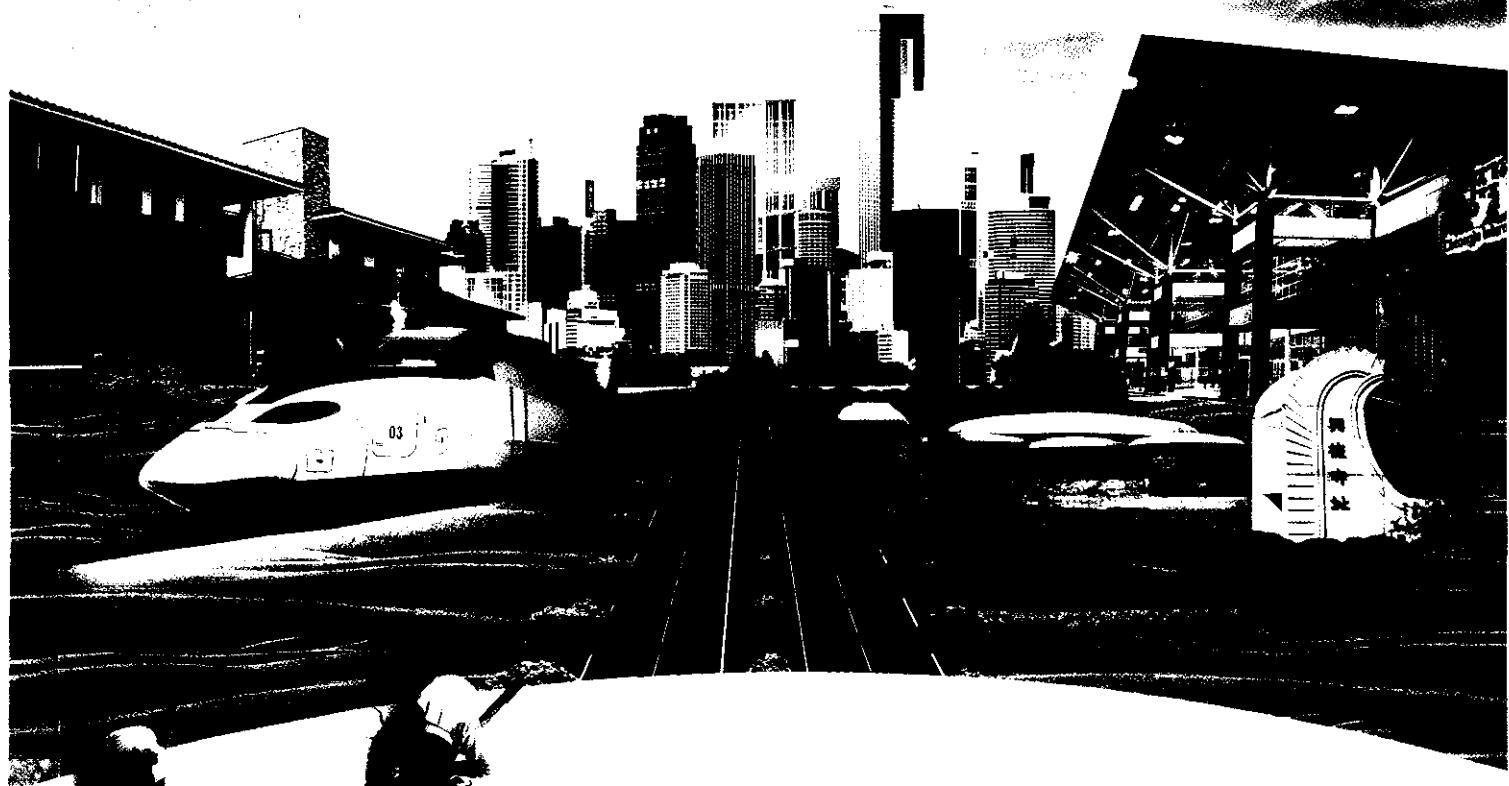


**BIG**

경제특별도 충북

충북

우리의 미래입니다



CHUNGBUK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 수면을 여는 태양처럼

수면을 박차고 친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150만 도민이 하나가 되어 경제특별도 건설의 새벽을 힘차게 열어갑니다.

경제특별도는 최적의 투자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의미하며, 충북이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은 충북의 발전전략이자 미래 비전입니다.

## **충북으로의 초대**

5

## **시대의 중심에 선 충북 충북의 기본현황**

6

7

### **영원한 청풍명월**

10

소백산 국립공원

11

월악산 국립공원

12

속리산 국립공원

13

충주호

14

대청호

15

##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

16

### **▶ 투자·경영환경 대한민국 투자 1번지**

17

#### **▶ SOC인프라**

국가교통망의 중심 – 충북 SOC

20

전 국토를 'X' 형으로 연결합니다 – 철도

21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2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 – 청주국제공항

24

국토의 중심에 물류기지가 있습니다 – 물류시스템

26

#### **▶ 첨단산업**

충북 성장동력 – 첨단산업클러스터

28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힘입니다

29

최고의 투자기회를 자닌 최적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32

동북아 바이오 메카 – 오송생명과학단지

34

IT산업의 절대 강자 – 오창과학산업단지

35

생태산업단지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 청주산업단지

38

첨단산업거점지대 – 전천·음성·증평산업단지

40

중부내륙 성장거점 – 충주산업단지

42

생산·주거·상업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 제천시첨성산업단지

44

균형발전과 도농상생의 핵심거점 – 보은·옥천·영동산업단지

46

고부가가치 친환경 충북농업

48

#### **▶ 인적자원**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 지역에 꼭 필요한 대학

52

#### **▶ 신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거점, 신도시

54

동북아 생명과학 거점도시 – 오송신도시

55

국토 동서 개발축의 중심 – 전천·음성 혁신도시

56

천혜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 제천 종합면수티운

58

자식기반형 Green Technopolis – 충주 기업도시

67

## **보고싶은 충북, 보여주고 싶은 충북**

68

#### **▶ 중부권**

청주·청원·괴산·증평·진천·음성

69

#### **▶ 남부권**

보은·옥천·영동

81

#### **▶ 북부권**

충주·제천·단양

83



# Economy Capital Chungbuk

아름다운 산하와 온후한 인심 그리고 중원의 저력을 간직한 충북!  
이제,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 충북으로의 초대

충북은 백두대간이 뻗어 내려 소백산·월악산·속리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맑은 물을 머금은 충주호와 대청호는 머물 듯 굽이쳐 한강과 금강을 잉태한 산자수명한 아름답고 청정한 고장이며, 이러한 자연을 닮은 여유로운 인심과 올곧은 선비의 기개가 스며 있는 곳입니다. 또한, 찬란한 중원문화의 발상지이며 60억 인류의 소중한 세계기록문화 유산인 '직지'를 만들어 낸 저력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충청북도가 국토의 중심에서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이며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오송역, 객자형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송·오창단지를 축으로 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IT, BT 첨단산업과 인프라, 최고의 산업용지 입지조건, 풍부한 우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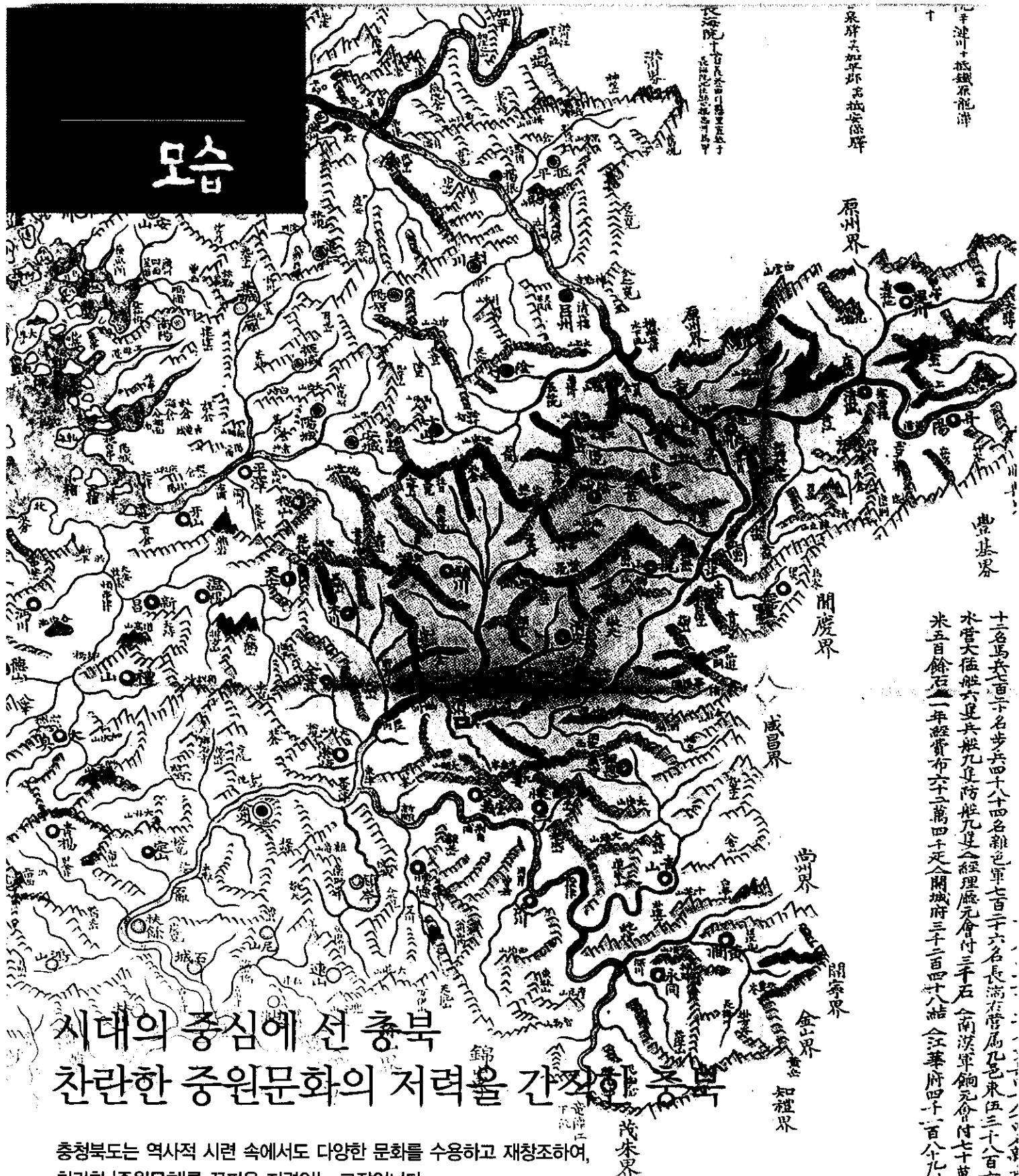
이러한 기반 위에 IT, BT 등 첨단산업과 청정 환경이 어우러지고, 최고의 기업 입지조건에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며, 기업인이 존경 받는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감으로써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충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경제특별도 충북'을 한장 한장 넘기시며, 우리 충북의 제반 환경과 인프라, 칠학을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북, 모든 도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경제특별도 충북의 힘찬 전진에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충청북도지사

十二名馬兵七百二十名步兵四百四十名雜色軍士一百六十六名長滿在營屬匠邑東伍三十八百六十八名馬兵三百四名步兵一千九百水營大船六隻兵船九隻防船九隻經理廳元會付三千石金南漢軍餉元會付七十萬石今江華軍餉元會付十七萬石米五百餘石二年經費布卒二萬四千疋開城府三千二百四十八結江華府四千一百八十九結



충청북도는 역사적 시련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재창조하여,  
찬란한 '중원문화'를 꽂피운 저력있는 고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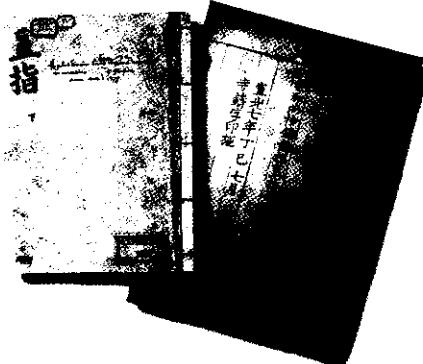
출처\_ 京畿道·忠清道古地圖帖 彩色筆寫本\_ 영남박물관 소장

## 시대의 중심에 선 충북

- \* 선사시대 : 구·신석기인 생활터(충주, 제천, 단양, 청원 등 유물산재)
- \* 삼국시대 :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로 세력다툼의 각축장
- \* 고려시대 : 995년(성종 14년) – 중원도, 1106년(예종원년) – 충청도
- \* 조선시대 : 1896년(고종 33년) – 충청북도, 1908년 – 도청이전(충주→청주)
- \* 근세시대 : 서울에 인접하여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행정구역 변천
- \* 산업발전시대 : 전통농업 위주의 1차산업 중심에서 공업화의 진전으로 2차산업 확대
- \* 지식정보화시대 : IT와 BT의 양대 첨단산업 발전축 구축, 사통팔달의 교통·물류기반 확충 등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중심지로 부상

## 찬란한 중원문화의 저력을 간직한 충북

- \* 충북의 북부지방인 충주, 제천과 단양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의 기저인 선사문화유적 분포
- \*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접경지대로 치열한 각축전과 삼국의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중원문화 형성
- \* 삼국통일 이후 청주에는 서원경, 충주에는 중원경이 설치되어 지방문화의 중심지 역할
- \* 고려시대 청주 흥덕사지에서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인쇄
- \* 조선시대의 선비문화와 의병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충북의 진정한 힘, 중원의 저력을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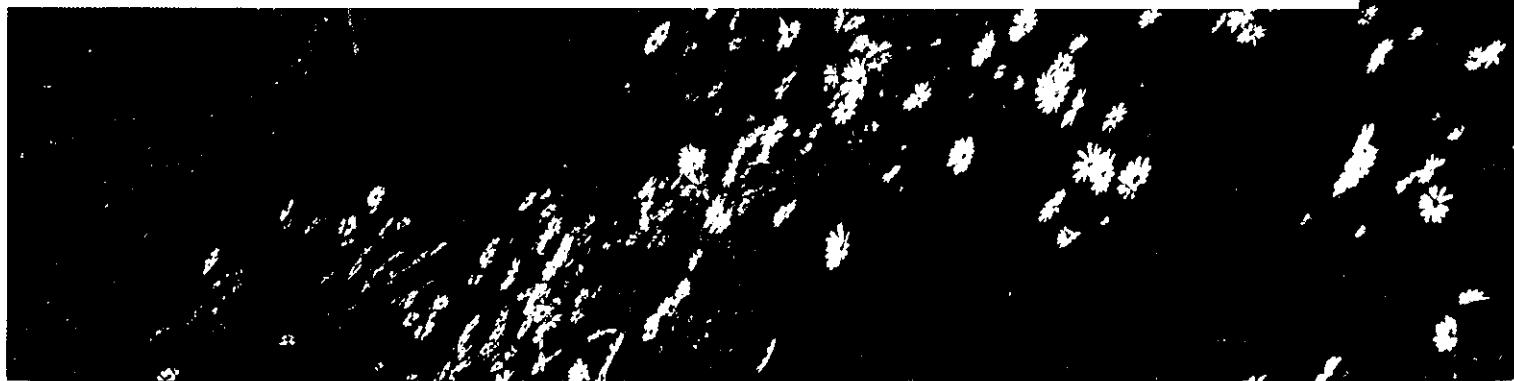
이제, 충북의 새로운 역사 ‘경제특별도 충북’을  
만들어 갑니다.



BT·IT·GREEN CHUNGB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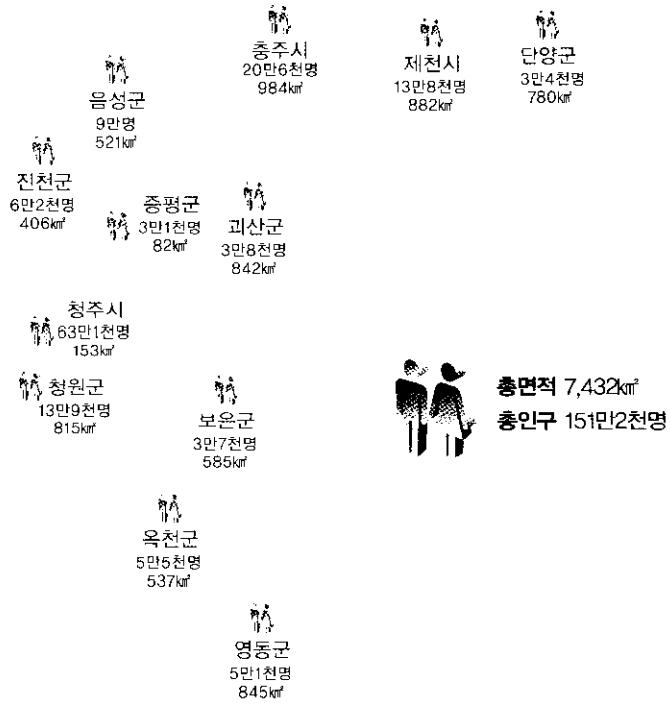
**BIG**  
경제특별도 충북

동쪽은 경상북도, 서쪽은 충청남도, 남쪽은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북쪽은 경기도, 강원도가 접해 있는 충청북도. 인구도 면적도 작지만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BIG충북



## 충북의 기본현황

- \* 위치 | 북위 – 36°00'~37°15', 동경 – 127°16'~128°38'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
- \* 한반도 유일의 내륙도 | 동부는 소백산맥, 북서부는 차령산맥을 경계로 하고  
남한강과 금강이 지역을 가로질러 흐름
- \* 지질 | 각종 화성암과 퇴적암 및 변성암들로 다양하게 구성
- \* 지형 | 동부와 남부는 고지대가 많고 서부와 북부는 저평한 지역이 많음
- \* 기후 | 연평균 기온은 10°C~12°C로써 온대기후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100~1,300mm
- \* 행정구역 | 3시 9군, 14읍 89면 50행정동



# 산하



맑은 바람과 밝은 달처럼 깨끗하고 단아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 충북.  
국토의 중심부에서 소백산·월악산·속리산·충주호·대청호 등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을 간직한  
훈훈하고 안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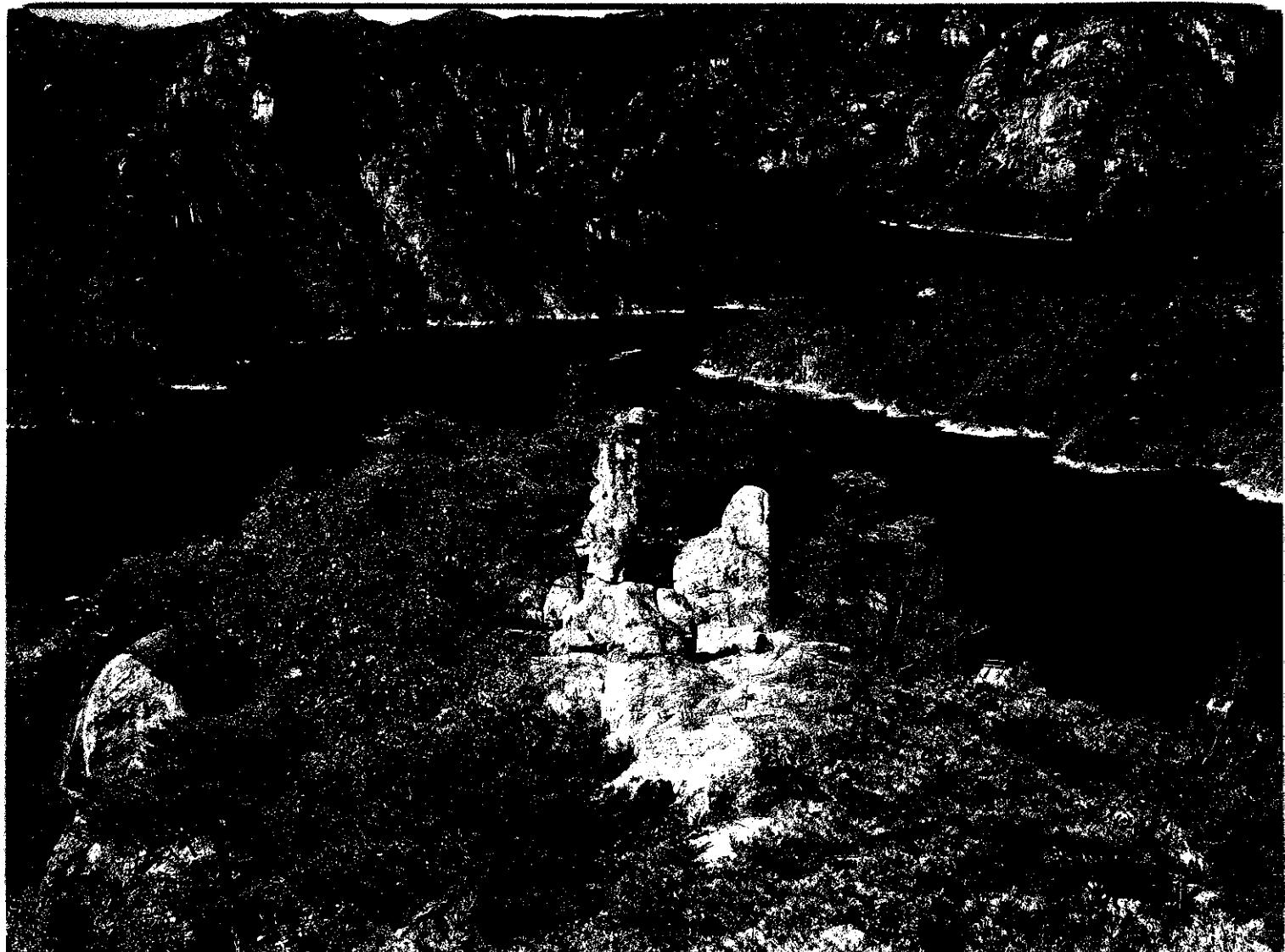
소백산은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이 서남쪽으로 솟구쳐 올라 강원도, 충청도와 경상도를 가르며 병풍처럼 우뚝 서있습니다.

## 소백산 국립공원

한민족의 정기를 한껏 받아 한반도의 중심에 우뚝솟은 소백산은 장백·태백산과 함께 민족의 성산으로 추앙 받고 있습니다. 반도의 등뼈격인 태백산맥의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를 길라 큰 산계를 이루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단양의 지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봄이면 철쭉이 만개하여 그 아름다운 차태를 드러내며, 천연기념물 제244호인 주목 군락과 능선의 부드러운 멋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능선을 따라 전개되는 대설원은 부드러움과 장쾌함이 돋보이는 겨울산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안내 단양군 문화관광과 043-420-3544, [www.danyang.chungbuk.kr](http://www.danyang.chungbuk.kr)





## 월악산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문경시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북으로 충주호반의 월악산을 휘감고, 동으로 단양 팔경과 소백산 국립공원, 남으로 문경새재와 속리산 국립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총면적 284.5㎢, 해발 1,097m의 월악령봉을 비롯하여 깎아지른 산줄기는 끝을 모르고 뻗어내려, 예로부터 신비의 영산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절벽 사이로 운치있게 자란 청송과 암반길을 지나 주봉에 올라 보면, 청풍호의 푸른 물과 산야 풍치가 연출하는 비경이 보는 이의 탄성을 절로 나게 합니다. 공원내에 중원미륵리사지(사적 제317호)를 비롯하여 덕주사, 신륵사 등의 전통사찰과 사자빈신사지석탑(보물 제94호), 덕주 산성(기념물 제35호), 신륵사 3층석탑(보물 제1296호)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빼어난 국립공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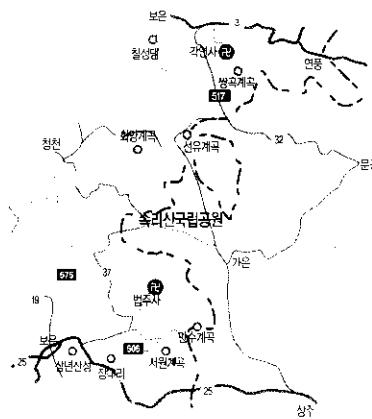
**안내** 충주시 관광과 043-850-6721 [www.cj100.net](http://www.cj100.net)  
제천시 관광팀 043-641-5131 [www.okjc.net](http://www.okjc.net)  
단양군 문화관광과 043-420-3544 [www.danyang.chungbuk.kr](http://www.danyang.chungbuk.kr)





## 속리산 국립공원

대한팔경 중의 하나인 속리산은 충북 보은군과 경북 상주시에 걸쳐 여덟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산세가 장쾌하고 사계절 경관이 수려하며, 화양·선유·쌍곡 등 3개의 계곡과 함께 국립공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속리산은 우리나라 대사찰 중의 하나인 법주사를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 주봉인 천황봉(해발 1057m)을 비롯, 입석대·문장대·경업대 등 1,000m가 넘는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이 가히 절경을 이루릅니다. 봄에는 산벚꽃, 여름에는 푸른 소나무, 특히 가을철에는 만산총엽의 단풍이 국치를 이루며, 법주사의 고풍이 더욱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은폭동 계곡, 목욕소, 학소대, 석문, 장군약수가 있으며 정이풀송(천연기념물 제103호), 망개나무(천연기념물 제207호) 등 672종의 식물과 까막딱다구리(천연기념물 제242호),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등 희귀 동물을 포함하여 344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자원의 보고 이기도 합니다.

**안내** 보은군 문화관광과 043-540-3391, [www.boeun.go.kr](http://www.boeun.go.kr)

支  
主  
之

충주에서 유람선을 타고 단양까지 가는 130리 뱃길 중간에는 월악산의 절경과 청풍문화재단지, 기암괴봉이 충주호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한 폭의 수채화를 연출합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송계계곡, 청풍문화재단지, 단양 8경, 고수동굴, 구인사, 수안보온천, 노동등굴 등 수많은 관광자원들이 주변에 펼쳐져 있으며, 국제적인 관광지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충주다목적댐은 한반도의 중심부를 뛰뚫는 남한강 수계에 건설된 국내 최대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서 높이 97.5m, 길이 447m, 체적 90만2천 $m^3$ , 저수용량 27억5천만톤으로 41만2천kW에 이르는 발전시설 용량을 가지며, 6억1천6백만 $m^3$ 의 흉수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내 충주시 관광과 043-850-6721 [www.cj100.net](http://www.cj100.net)  
제천시 관광팀 043-641-5131 [www.okjc.net](http://www.okjc.net)  
단양군 문화관광과 043-420-3544 [www.danyang.chungbuk.kr](http://www.danyang.chungbuk.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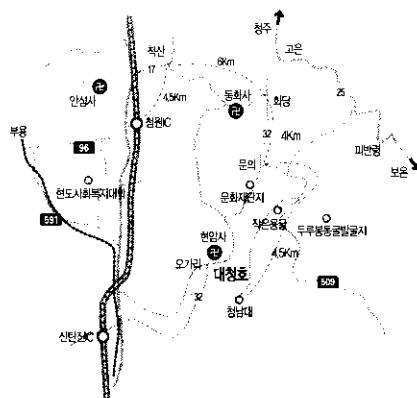


## 대청호

새벽이면 물안개가 신비롭게 피어나고, 낮에는 쪽빛 하늘과 흰구름이 한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곳. 대청호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호반도로는 상쾌한 공기와 풍경이 어우러진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대청호는 충북 청원군과 대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수용량 14억9천만톤으로 중부권에서는 충주호 다음으로 큰 호수입니다. 해발 200~300m의 야산과 물이 끝없이 이어져 산이 마치 섬처럼 보입니다. 대청호는 금강의 한가운데 댐을 막아 만들어진 거대한 호수로 청주·대전지역의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안내 청원군 문화공보과 043-251-3226, [www.puru.net](http://www.puru.net)



# 경마특별도

기업입지 조건과  
다.



## :: 이유있는 선택 – 충북



**최적의 투자여건과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조성합니다.**

- 맞춤형 산업입지 조성과 이전기업에 대한 최상의 인센티브 부여
- 기업인이 존경받는 기업인 예우문화와 노사 상생의 노사평화지대 조성

**사통팔달의 쾌속 교통망과 중부내륙의 물류시설이 있습니다.**

-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에 접근 가능



**IT, BT 등 첨단산업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 보건의료 4대 국책기관,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연구시설과 각종 지원시설
- 오송·오창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첨단산업벨트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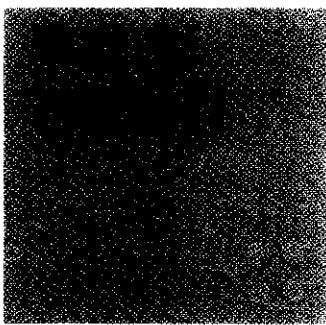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 13개의 4년제 대학, 5개의 전문대학, 2개의 기능대학 등 20개의 대학



**최첨단 인프라와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 오송신도시, 음성·진천 혁신도시, 제천 종합연수타운, 충주 기업도시



## 대한민국 투자 1번지

최적의 투자여건과 기업인에 대한 혜택, 창업 지원, 기업지원, 노사상생의 평화지대 조성 등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편의를 갖춘 혁신과 혁력의 도시 충북입니다.

##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충북을 만듭니다.

- 기업인 '氣 살리기 운동' 전개
  - 기업인의 날 운영,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대상 시상 등
- 기업인 예우문화 조성을 위한 24개 과제 추진
  - 명예의 전당 조성, 청주국제공항 귀빈실 이용, 공공시설 무료이용 등
- 범도민적 기업사랑 운동 전개 : 기업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전국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합니다.

- 맞춤형 산업입지 조성 : 72개소 / 1,432만평
  - 권역별(남부·중부·북부권) 특화단지
  - 산업입지 클러스터 조성
-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수도권 이전기업 : 최고 100억원
  - 타시도 이전기업, 도내기업 공장 증설 : 최고 50억원
  -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 10억원
  - 투자진흥기금 설치 운영 : '09년까지 100억원
- 투자 저해요인(법령, 조례, 지침 등) 일제 정비

- ④ 창업자의 One-Stop 서비스 제공
- 기업애로지원센터 및 기업민원 온라인 처리 'e-사랑센터' 운영
  -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One-Stop 지원
- 저리자금 적기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지원 확대
  - 바이오토피아펀드 운영(110억원)
- 일류벤처기업 지정 운영 : 금리우대, 마케팅·홍보 등 지원

## 노사 상생의 노사평화지대를 조성합니다.

- 노사정이 함께하는 '충북 노사정 포럼' 상설 운영
  - 노사정 음악회·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파트너십 기반 마련
- 노사평화지대 선포식 개최
  - 노사정 협력네트워크 구축(2007~2008년)
  - 기업·지역단위 노사평화협정 체결 유도(2008~2009년)
  - 충청북도 노사평화지대 선포식(2009년 5월)
- 노사평화기업 금융지원 인센티브 부여

SOC 인프라

기능화



:: 전 국토를 'X'형으로 연결합니다 – 철도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충북선을 연계한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철도를 따라 지역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 국가의 대동맥인 경부선과 경부고속철도, 그리고 충북선의 전철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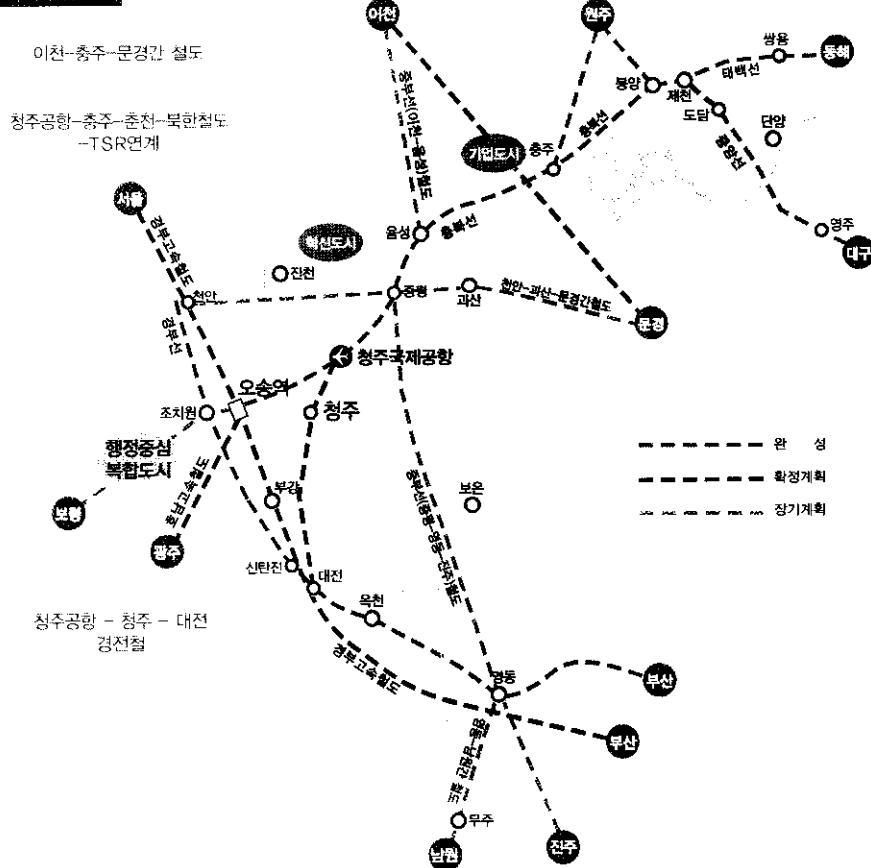
철도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중앙선 원주~제천~도담간, 태백선 제천~쌍용간 복선 전철화
  - 이천~충주~문경간 철도와 청주(공항)~대전간 경전철(계획 확정)

전 국토와 연결되고 대륙으로 뻗어가는 철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천안~괴산~문경간, 영동~무주~남원간(전라권), 이천~음성 / 증평~영동~진주(중부선)
  - 'X' 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장차 대륙횡단철도(TSR, TCR)와 연결
  - 고속철도 오송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역으로 육성

첨도망



## ::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전국과 쉽게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 청주외곽을 남북으로 관통하여 뻗어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 제천·단양과 충주를 각각 종단하는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 평택 – 음성 – 충주 – 제천간(안증 – 삼척, 4축), 청원 – 보은 – 상주간(서천–영덕, 6축) 고속도로(건설중)
- 수락IC – 증평IC간(당진 – 울진, 5축) 고속도로(착공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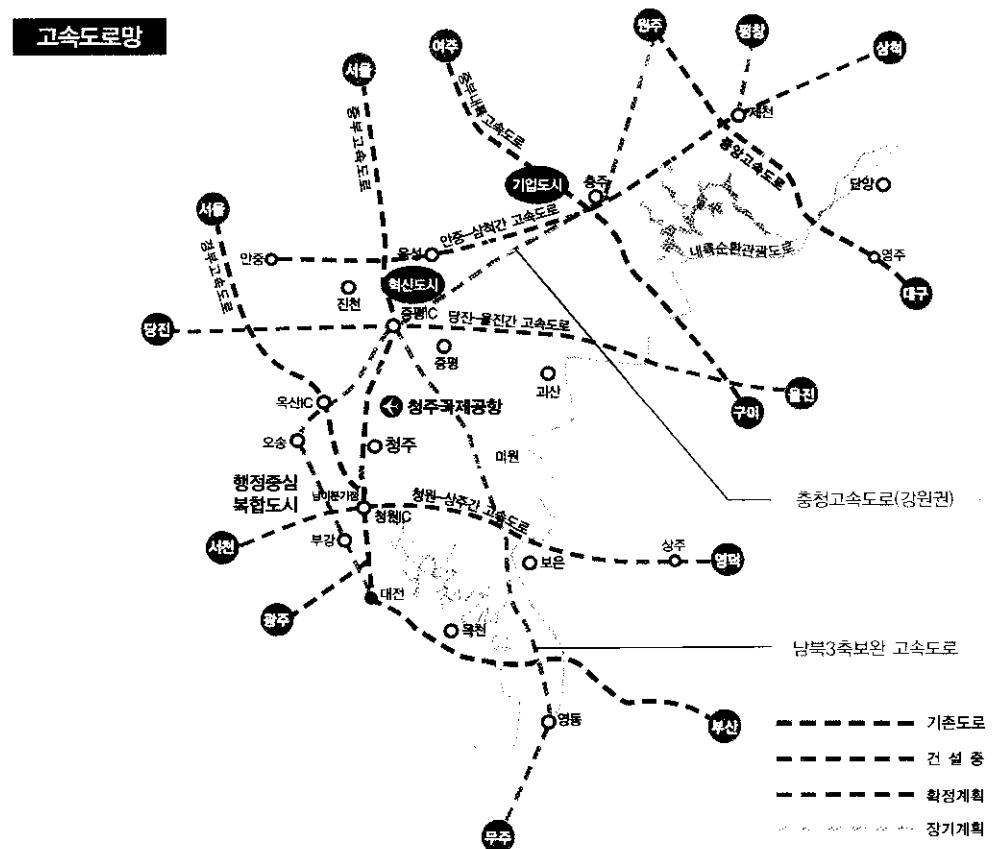
도내전역을 격자형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 충청고속도로(대전 – 오송 – 충주 · 제천 – 원주 · 평창)  
남북3축보완고속도로(증평IC – 영동 – 무주)건설



#### 도내 전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분	고속도로명	통과 지역
완성 (4개)	경부고속도로	서울 ← 청주 · 청원 · 옥천 · 영동 → 부산
	중부고속도로	서울 ← 음성 · 진천 · 청원 · 청주 · 대전 · 무주 · 진주
	중앙고속도로	춘천 ← 제천 · 단양 → 대구
	중부내륙고속	여주 ← 충주 → 상주 → 구미
공사 중 (3개)	안증 - 삼척간(동서4축)	안증 ← 친천 - 음성 - 충주 - 제천 → 삼척
	당진 - 울진간(동서5축)	당진 ← 친천 - 증평 - 괴산 → 울진
	서천 - 영덕간(동서6축)	서천 ← 공주 - 청원 - 보은 → 영덕
장기계획 (2개)	충청고속도로	대전 ← 오송 - 청원 - 증평 - 음성 - 충주 · 제천 → 원주 · 평창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	증평C - 청원 - 보은 - 옥천 - 영동 → 무주





##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 – 청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은 국내 네번째 규모로 중부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시설설명

- 총부지 138만m<sup>2</sup>, 여객청사 2만2천m<sup>2</sup>, 화물터미널 2만3천m<sup>2</sup>
- 주차장 770면, 계류장 A300급 5대 주기, 활주로 2본(2,740m)
- 여객 299만명 수송, 화물 3만 8천톤, 항공기 19만 6천회
- 국내선 : 제주 1일 11회
- 국제선 : 중국 상해 · 심양 · 항저우 · 심천 · 장가계, 필리핀 마닐라, 동남아(전세기 운항), 러시아 브라츠크(화물기)





### 청주국제공항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항시설 이용료 등이 저렴합니다.

- 국토 중앙에 위치하고 철도·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서울 1시간, 대전 30분, 전국 주요 도시 2시간대 접근 가능
- 공항시설의 이용료가 타공항(인천, 김포 등)에 비해 50% 이상 저렴하고 여객청사 이용료 및 주차요금도 월등히 저렴

#### 공항 접근 시간

청주, 청원, 진천, 괴산 ▶ 30분이내	대전, 천안, 연기, 보은 ▶ 40분이내	충주, 안성, 음성, 옥천, 이천, 오산, 평택, 아산 ▶ 60분이내
서울, 여주, 용인, 수원, 성남, 광주, 화성, 공주, 논산, 금산, 제천, 원주, 상주, 문경 ▶ 60~90분이내		

#### 항공시설 사용료(Airbus 300의 경우)

공항별	계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안전시설사용료	여객청사 이용료	주차료(1일)
인천공항	1,706,810	1,244,000	106,270	211,340	116,200	17,000	12,000
청주공항	616,720	436,480	79,790	24,350	58,100	12,000	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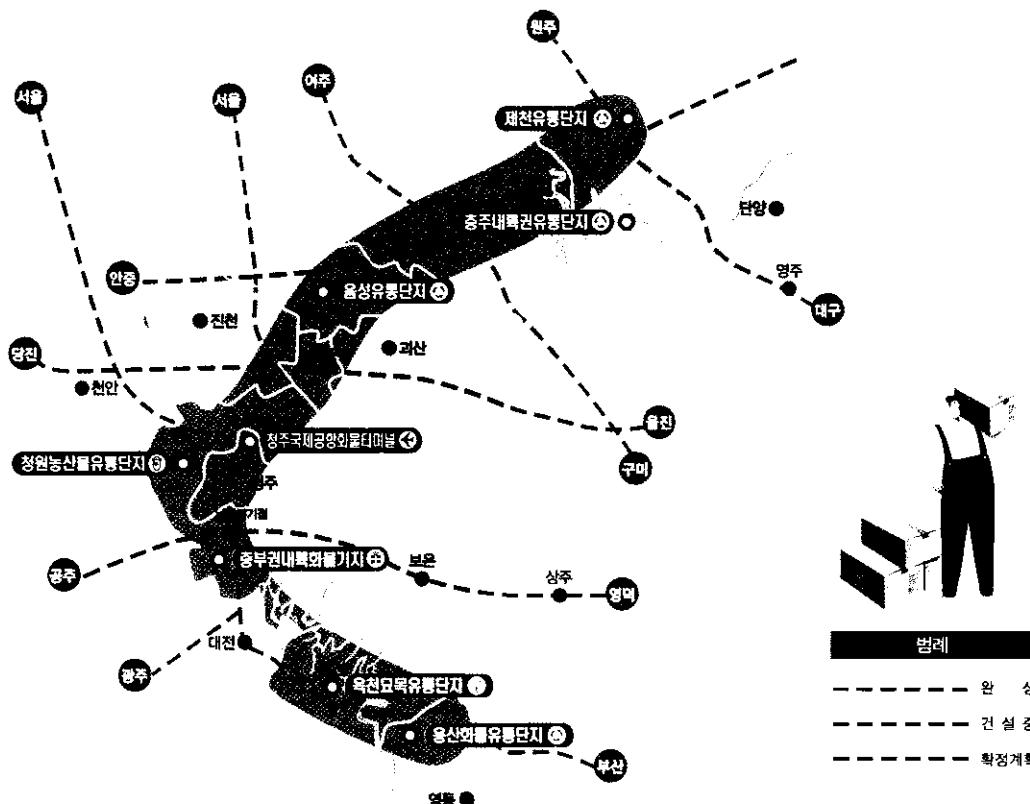
### 공항시설을 확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대형기종이 이용가능토록 활주로·계류장 등을 확충 : 활주로 연장(2,740m → 4,000m), 계류장 확장(5→9기), 유도로(신설 2)
- 공항으로 향하는 교통시설 개선 : 수락IC - 증평IC간 고속도로, 공항 - 천안 4차선 등
- 공항도시 형성 : 공항주변에 경제 마을구역, 항공물류센터, 이용객 여가시설 등 공항도시 입지기반 조성

부산·광양·제주·부산의 금강을 거쳐온 강과 바다  
부산·광양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경제의 내륙거점이 될 것입니다



중부권 Y자형 물류밸트



천주·천월권 |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부상

청주국제공항을 항공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공항 주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집배송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합니다. 신속 정확한 배송체계를 요하는 첨단산업제품, 경박단소형 제품, 청정농산물 등  
항공물류 관련사업의 중심지로 청주국제공항이 급부상할 것입니다.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중심 | Y자형 물류벨트 혁신

중부·경부고속도로 음성·진천·청원 구간에 대기업 물류기지, 택배사 등 30여개의 대형물류센터가 이미 입지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중부권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Y자형 물류벨트를 육성합니다. 또한 청주산업단지·오청과학산업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 등에 산재해 있는 공장의 물류를 연결할 수 있는 물류시설을 설치합니다.

북부권 |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한 물류기지 조성

기업도시 건설,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충주·제천지역의 산업화에 대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한 물류관리 체계를 확립합니다. 제천시에는 중앙고속도로와 국·지방도의 교통망체계를 활용한 충부내륙광역권 물류유통허브단지를 건설합니다. 충주지역은 충부내륙고속도로와 안증~삼척고속도로의 결절지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중북부권의 물류집배송 기능을 수행합니다.

남부권 | 농특산품유통 전담물류기지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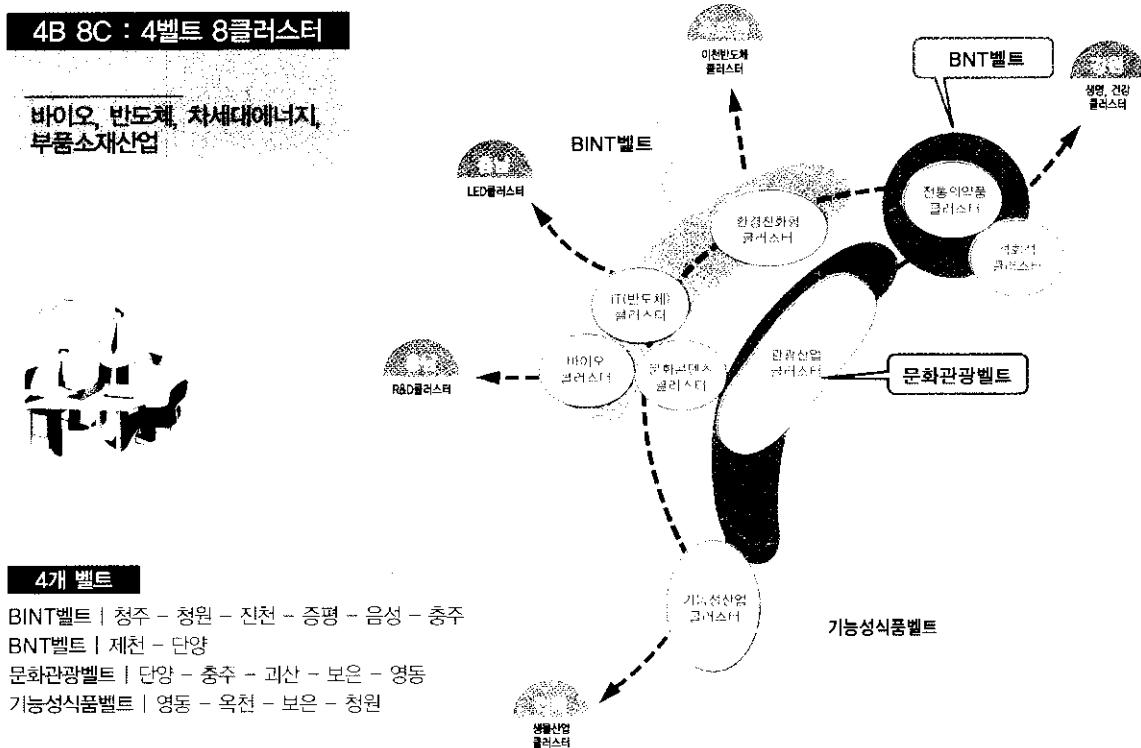
바이오 농사업단지(보은)와 올천·연동초를 중심으로 농특산품 유통 전담물류기지를 건설합니다.

## 첨단산업

충북 성장동력으로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4개 벨트와 8개 클러스터를 연계·발전시키는 독창적인 충북발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충북성장의 매직넘버 – 4 · 4 · 8

한반도 및 지구촌에서 충북의 역량이 한껏 빌휘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하기 위해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산업·자원·기능·연계성 등을 고려해 충북전역을 4개 벨트와 8개의 클러스터로 발전축을 설정하였습니다.





##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힘입니다.

충북은 핵심거점마다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발전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산·학·연·관 지원 및 기능공유의 강화

- 산업구조 패러다임 변화에의 대응과 실재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상호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최대한 공유체계 마련
- 인력, 기술, 시설·장비, 유통, 정책, 제도, 컨소시엄 등 분야별 협력 네트워킹 활성화
-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추진과정에서 개별 주체의 참여 균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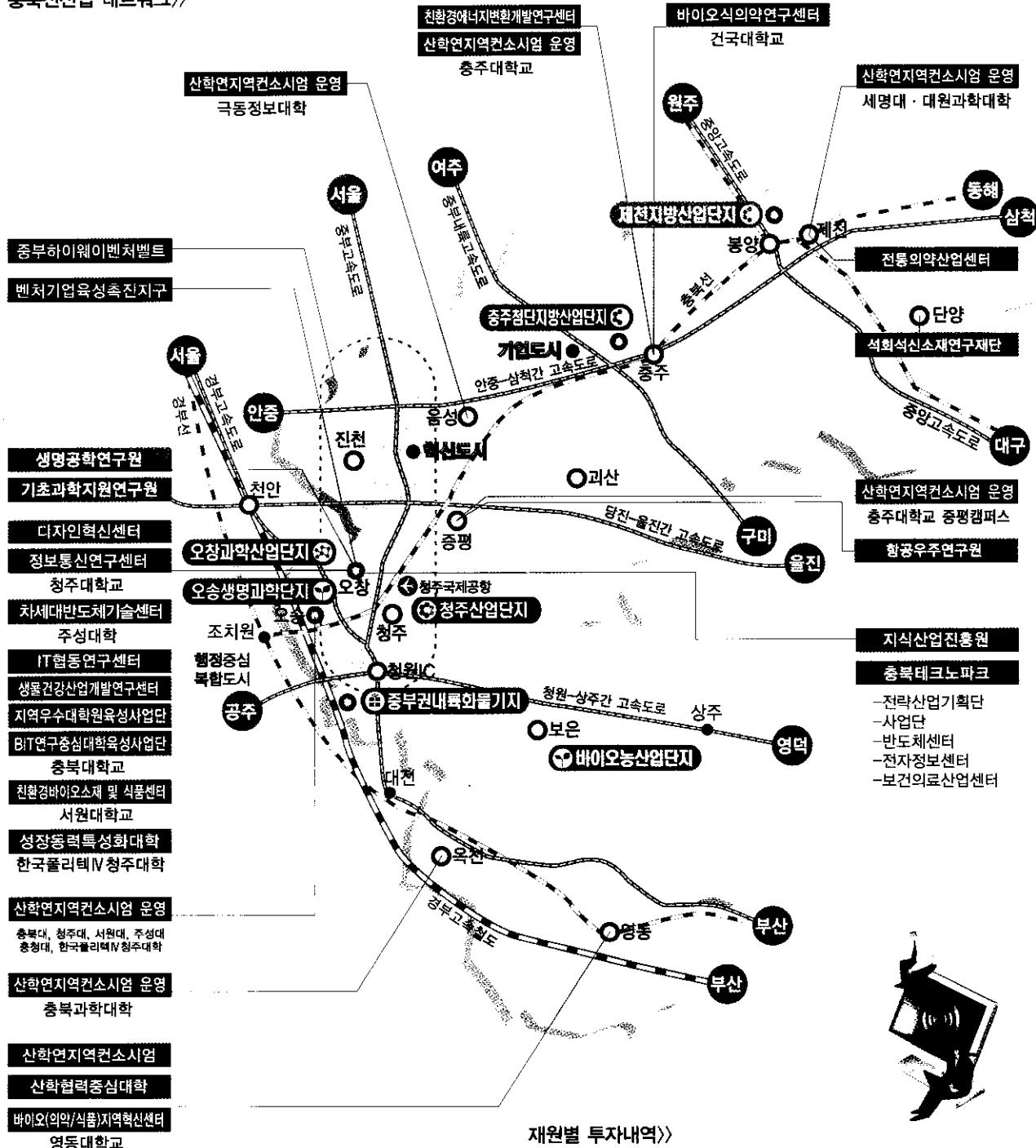
###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 및 종합발전전략 수립

- 과학기술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호연계협력체계 구축
- 네트워크 참여주체의 기능 명확화 및 주체간 역할결집기반 마련
- 지역기술과 산업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 조건 설정 및 컨텐츠 정립

###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거점지역과 기구를 선정·연결 거점성 확보
- 거점기구의 명확한 지정을 통한 실체성 확보
- 네트워크 거점기구를 중심으로 연계추진 사업의 중복방지와 제반 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기반 마련

충북신산업 네트워크》



재원별 투자내역>>

구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1,583,236	1,371,838	84,176	127,222
● 연구기획(5)	1,135,052	1,106,400	28,652	
● 지원기관(3)	249,757	138,699	38,386	72,672
● 대학(12)	189,727	122,389	14,963	52,375
● 컨소시엄(142)	8,700	4,350	2,175	2,175

• 연구기간: 2013~2014년 | 저작권: © 2014 KETI



## 최고의 투자 가치를 지닌 최적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동북아 IT산업의 메카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주산업단지, 진천산업단지, 음성산업단지, 증평산업단지, 충주산업단지, 제천산업단지 등 최고의 투자 가치를 지닌 산업단지가 충북의 첨단산업 지식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지식벨트와 연계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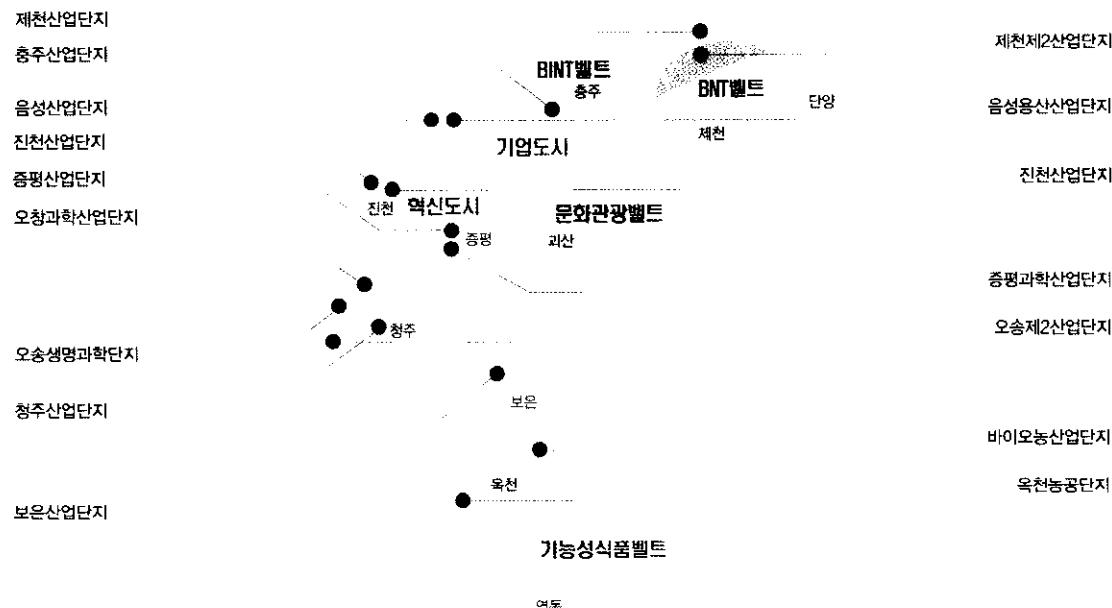
### 충북지역의 주요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주요업종	주요 기술분야
오송생명과학단지	의료, 의약, 생명	BT
오창과학산업단지	IT, S/W, 전자정밀	IT, BT, BIT
청주산업단지	반도체, 전자·통신기기, 음·식료, 화학	IT
진천산업단지	생명과학, 신소재	BT, NT
음성산업단지	음·식료, 디자인, 조립금속	-
증평산업단지	항공,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ST
충주산업단지	신소재, 광학	NT
제천산업단지	한방바이오, 의약품	BT
보은산업단지	화약, 화학	방산용

### 국가첨단산업의 거점 – 충북첨단산업벨트

오송 – 오창 – 증평 – 진천 – 음성 – 충주 – 제천을 축으로 하는 충북의 첨단산업벨트, 국토개발의 축인 서울 – 부산의 중간으로써 대전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첨단산업지대로 육성합니다.

#### 기존 주요 산업단지



####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 7개소 2,870천평

산업단지	면적(천평)	주요업종	사업기간
제천제2산업단지	400	BT, 의약품	2006~2012
오송제2산업단지	650	IT, BT	2006~2011
증평과학산업단지	200	IT계열	2007~2012
진천산업단지	400	IT, BT	2007~2010
음성용산산업단지	170		2006~2010
옥천농공단지	50	의료, 전자	2007~2009
비아오농산업단지	1,000	기능성식품, IT, BT	2007~2014



위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일원 4,633,000m<sup>2</sup>(140만평) 사업기간 : '97~'08. 사업비 4,893억원

유치업종 : 의약품, 의료기기, 광학제조업, 보건의료 R&D지식사업, BT연관 IT·NT업종 등

기대효과 : 고용 1만4천명, 생산 2조4,000억원, 소득 2,600억원

## 동북아 바이오 메카 –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동북아 최고의 바이오 메카가 조성됩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됨으로써 미국의 봉고메리 카운티, 독일의 바이에른주 등 바이오 선진지와 경쟁할 수 있는 국가 전진기지가 구축됩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동북아 R&D 허브건설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바이오메카 충북은 물론, 바이오 코리아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교통·물류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 서울역(40분대, 고속전철), 청주국제공항(10분, 차량)
- 평택항(50분대, 차량) ※안중~(음성)~삼척간 고속도로 완공시(공사중)

보건의료 4대 국책기관과 4개 지원시설이 설치됩니다.

보건의료 4대 국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이 이전되고, 생명과학기술원, 생명의과학연구소, 바이오정보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4개 지원시설이 건립됩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가유일의 바이오 전문 국가산업단지로서 국제경쟁력 확충을 위한 산업기반이 완벽하게 구축됩니다.

## 유비쿼터스 기반의 고도정보화 시범도시(U-City)로 육성합니다.

도시내 모든 자원을 지능화, 네트워크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로든 필요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간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유비쿼터스(지능형)바이오신도시로 건설합니다.

## 세계 유수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합니다.

오송단지내 71만평의 부지에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연구지원시설, BT전문대학원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을 114천평 규모로 조성합니다.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취득세 등의 조세지원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경영안정자금과 기술혁신개발사업비 등의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 입주 기업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 ※ 조세지원 법인세 5년간 100% 감면(그후 2년간 50%)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감면(그후 3년간 50%)

### 국내기업 인센티브

지방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이전 기업 설비투자금액 10% 법인세 공제

※ 금융지원 산업기반기금, 경영안정자금, 벤처·우수기업특별지원자금, 신약·기술개발자금, 벤처창업자금 등을 저금리로 지원

### ※ 조세지원 법인세·소득세 고도기술수반사업 7년간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1천만불 이상 제조업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 외국인 투자지역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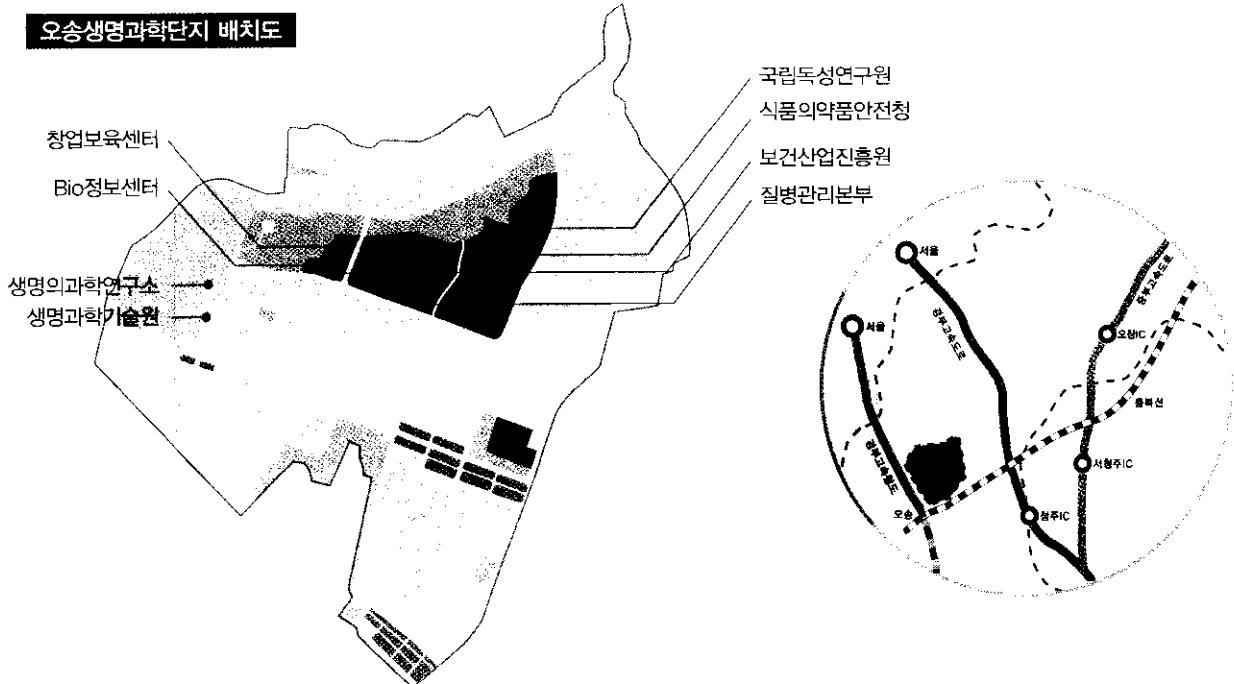
취득세·등록세·재산세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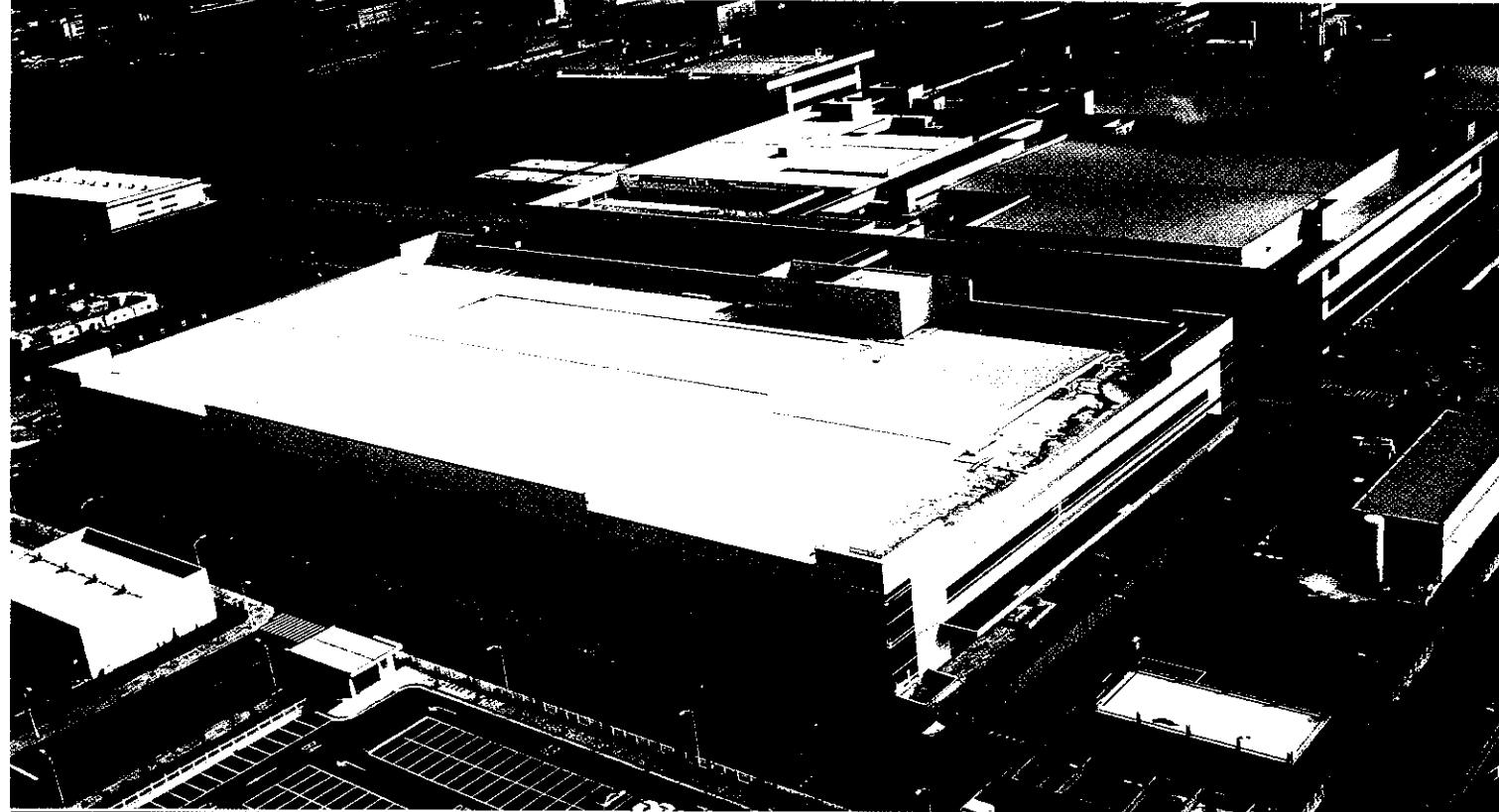
자본재에 대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 100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100%감면, 500만불 이상 제조업 75% 감면

※ 재정 지원 공동연구비용 보조, 국내인력 채용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비 지원

## 오송생명과학단지 배치도





위치 | 청원군 오창·옥산면 일대 286만평(중부고속도로변) 조성기간 및 사업비 | 1992~2003, 6천9백억원  
유치업종 | 전자·전기·및 정보·정밀기계·신공정·재료·소재·생명공학·광학·의료기기 등

생산유발효과가 3조1천억원, 상주인구 5만3천명, 고용창출 4만3천명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함께 충북 첨단산업 발전의 양대 축  
BINT(BT, IT, NT)융합산업의 거점으로 충북발전 견인

## IT산업의 절대 강자 –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중부권의 핵심 산업도시 기능과 업무·정보센터기능, 주거기능이 복합된 첨단산업단지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 244천평을 조성하여 JSR마이크로코리아 등 9개 외국기업을 유치·기동하는 등 동북아 IT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업단지 조성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었습니다.

- 교통 : 청주에서 10~15km거리(10분), 중부고속도로 오창 IC 단지내 위치  
    단지→청주공항간 6차선(5분), 충북선 청주역·오근장역(5분), 경부선 조치원역(15분)  
    대전 20분, 천안 15분, 서울 1시간
- 용수 : 대청댐을 통해 55천톤의 공업용수, 24천톤의 생활용수 공급
- 노동 : 단지내 10만명 규모 신도시 건설, 청주·청원 등 70여만명의 인구(노동력)인접
- 물류 : 단지 인근 청원군 부용면에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중

입주기업에게 정보·기술·재정·유통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지내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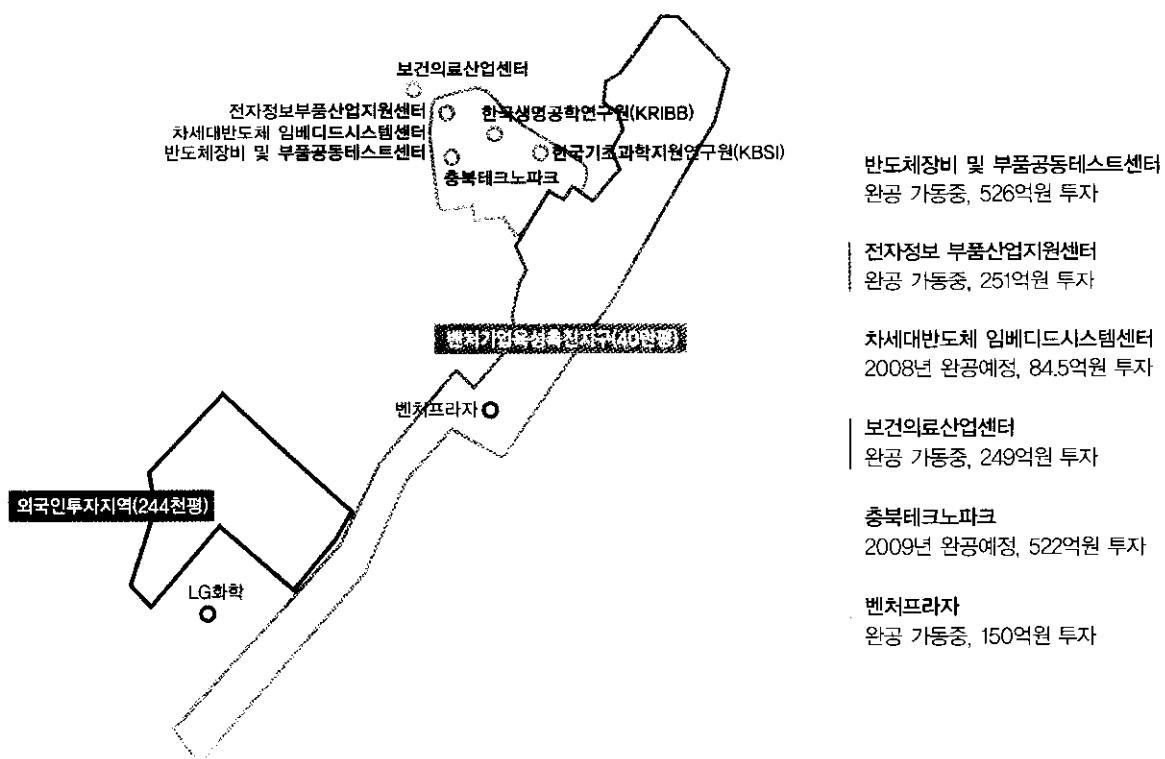
<b>오창 벤처플라자</b> IT·BT 등 지식기반사업 중심의 벤처기업 및 첨단 중소기업 육성 지원 - 부지 2,000평 건평 2,180평 - IT·BT·NT 벤처기업 19개업체, 전시장 및 공동 장비이용실 설치 등 - 최첨단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운영
<b>충북테크노파크</b> 충북의 핵심전략산업인 IT·BT·BIT분야 기술혁신거점 - 부지 13,612평, 건평 2,308평, 사업비 522억원 - 주요사업 : 지역기술혁신거점육성, 전략산업발전계획 수립·평가 반도체장비, 전자정보, 실버바이오, 전통의약산업 육성·지원
<b>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b> 벤처기업의 집적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인프라 및 정보통신시설 지원으로 벤처기업의 첨단화를 도모 - 인터넷방송실, 소프트웨어실, 국제회의 동시통역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 기술연구개발, 행정장비 및 사무용기기 공용 장비 구축
<b>외국인 투자지역</b> 244천평, JSR 마이크로코리아, 스템코, 쇼트구라모토프로세싱코리아 등 9개 외국인 기업 입주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생명공학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를 조성하여 바이오산업 창출의 집적지 형성과 세계적인 바이오 인프라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KRIBB**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 7만7천평 8,064억원 투자, 2003~2012년  
국가영창류센터, LMO위해성 센터 등 9개 연구소, 컨벤션센터, 홍보관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 연구지원을 위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를 설립, 세계수준의 바이오 및 나노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KBSI**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 6만8천평 3,000억원 투자, 2004~2013년  
차세대 NMR 장치 등 BT/NT관련 첨단연구장비 개발 : 3개분야 9개사업





## 생태산업단지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청주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는 1969년 제1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여 4단계까지 200여개 업체가 입주한  
중부권 최대의 산업단지로써 자원순환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로 틀바꿈하여,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생태산업단지로 탈바꿈

산업지원부로부터 생태산업단지 사업자로 선정되어 1960년대말 조성된 청주산업단지의 구조적 문제점(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의 원가절감과 자원순환형 친환경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통해 획기적인 도약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단지내 폐기물의 공동수거 및 공동처리, 폐기물의 자원화, 폐기물 재활용 기술 및 처리정보 공유 등으로 산업단지발생 폐기물과 부산물 제로화를 추진합니다.

## 생태산업단지!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적용하여 개별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폐 에너지 등을 기업간 네트워킹을 통해 다른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재 자원화 함으로써 산업단지내 부산물과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청주산업단지

**위치** | 청주시 송정동, 복대동, 봉명동, 강서동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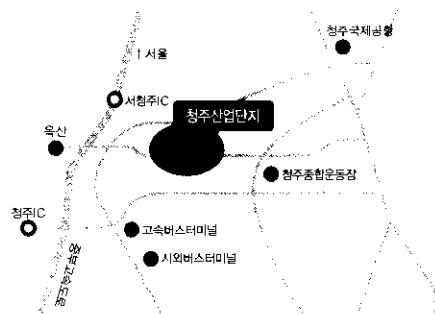
**면적** | 4,099천m<sup>2</sup>(1,289천평)

1단지 : 842천m<sup>2</sup>(255천평) 2단지 : 228천m<sup>2</sup>(68천평)

3단지 : 1,792천m<sup>2</sup>(542천평) 4단지 : 1,237천m<sup>2</sup>(374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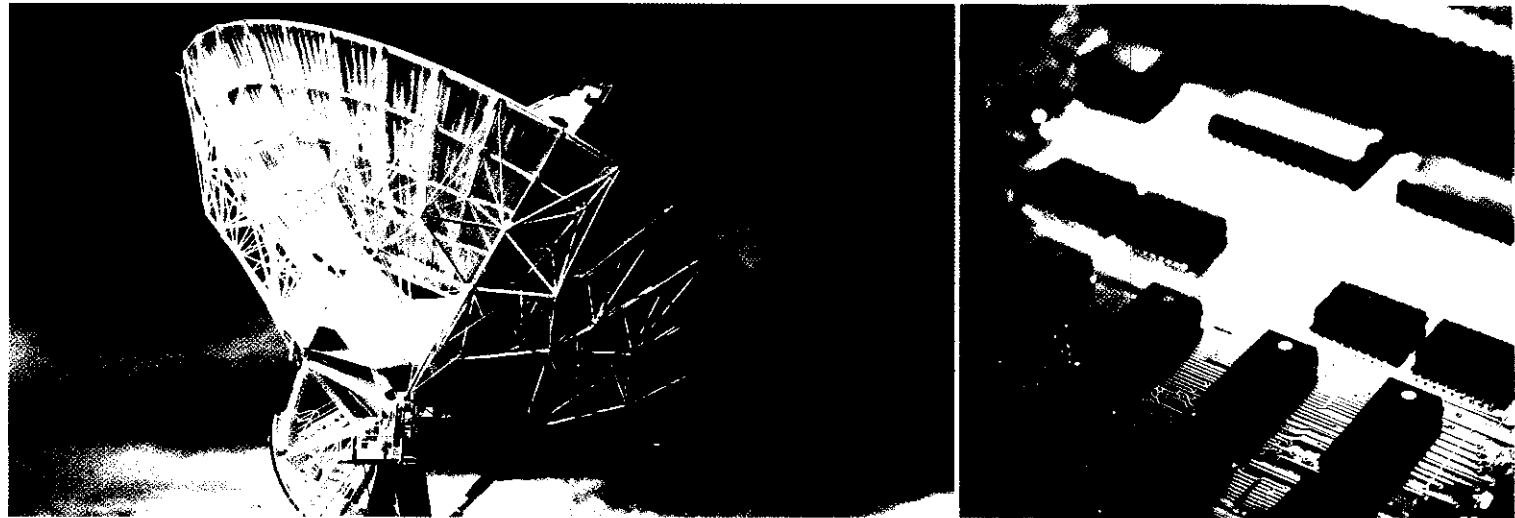
**업종** | 반도체, 전기·전자, 식품, 석유화학, 도자기 등

**입지조건** |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경부선과 총북선 철도, 청주국제공항 등 인접



## 첨단산업 거점지대 – 진천 · 음성 · 증평산업단지

진천 · 음성 · 증평 산업단지가 수도권 첨단산업지대와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국제교류기능과의 R&D 연계망 구축을 통해 기존 산업구조의 첨단화를 유도합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음성 – 진천 – 증평 주변에 밀집된 하이테크 벤처기업군을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벤처밸리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과 공업이 함께 성장하는 – 진천농공산업단지

진천군은 1984년 8월 전국 최초로 진천농공산업단지가 시범단지로 지정받는 등 농촌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어촌 균형발전과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진천농공산업단지

현황 | 진천농공단지, 덕산농공단지, 초평농공단지, 이월농공단지, 광혜원농공단지, 문백전기 · 전자농공단지, 광혜원산업단지, 이월지방산업단지

### 공예미을 조성사업

위치 |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일원, '04년말 완공  
업체 | 도자기를 비롯해 목공예, 철공예, 민속악기 등 22~30여개 업체 참여



## 정부지원, 교통, 용수 등 최적의 입지여건 – 음성농공산업단지

음성에는 농공단지로 음성농공단지, 금왕농공단지, 삼성농공단지가 있고 산업단지로 대풍지방산업단지, 대소지방산업단지, 소이지방산업단지, 금왕지방산업단지, 니트지방산업단지, 음성하이테크지방산업단지, 맹동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교통 | 3개 고속도로(중부, 중부내륙, 안증~심천) IC와 인접

용수 | 충주댐 광역상수도 용수 확보

유치업종 | 조립금속, 전기 및 전자기기, 의료광학, 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장비, 1차금속, 음·식료품,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기타 비금속 광물산업

## 항공·우주 과학산업의 메카 – 증평산업단지

최근 조성중인 산업단지 내에 미래 첨단산업의 동력 기운데 하나인 항공·우주분야 연구와 장비 개발을 주도할 항공우주연구원과 협약서를 체결,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립을 확정하였습니다. 증평은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소가 건립됨에 따라 증평은 오송–오창과 함께 중부권 미래 첨단 산업벨트의 한 축으로서의 발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역할 |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차세대 항공기와 전투기 개발, 항공 안전 품질 인증 등 실질적인 항공·우주 기술 개발 및 실험 담당

효과 | 3천490억원의 생산유발 및 950억원의 소득유발, 5천여명의 고용효과, 청주공항이 항공우주사업의 선도공항으로 역할하도록 지원

## 중부하이웨이 벤처밸트 개발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음성–청원 주변에 밀집된 하이테크 벤처기업군을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 세계적인 벤처밸리로 육성합니다. 이곳에 2010년까지 벤처기업을 1,500개 업체로 확대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부하이웨이 벤처밸트'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벤처 창업에서 입지까지 토탈서비스 제공 및 벤처자금을 지원
- 생산, 주거, 레포츠가 포함된 벤처밸리지 조성
-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마케팅 지원 등 디지털밸트 조성과 관련시설 집적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



## 중부내륙 성장거점 – 충주산업단지

충주는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충주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북 북부권과 중부내륙지역에 꼭 맞는 성장거점의 산업단지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첨단화, 고도화 및 지방화로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에 맞추어 충주권 일대의 산업시설용지 수요에 대처하게 됩니다.



위치 | 충주 이류면 완오리 일원(2,015천m<sup>2</sup>) 사업기간 | 2003~2007

유치업종 | 전자·전기 및 정보분야, 경밀기계·신공정분야, 재료·소재분야, 항공기·수송분야 등

교통 |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충주IC), 중부 및 중앙고속도로 이용 가능, 안증–충주–삼척간 고속도로 공사중 4통8달의 국도망 4차선 확충(서울, 청주, 제천, 원주, 문경 등)

용수 | 충주댐의 풍부한 용수(1일 25만톤),

총식공간 | 인근에 산악·온천·호반·레저시설 등 구비



**충주 제1지방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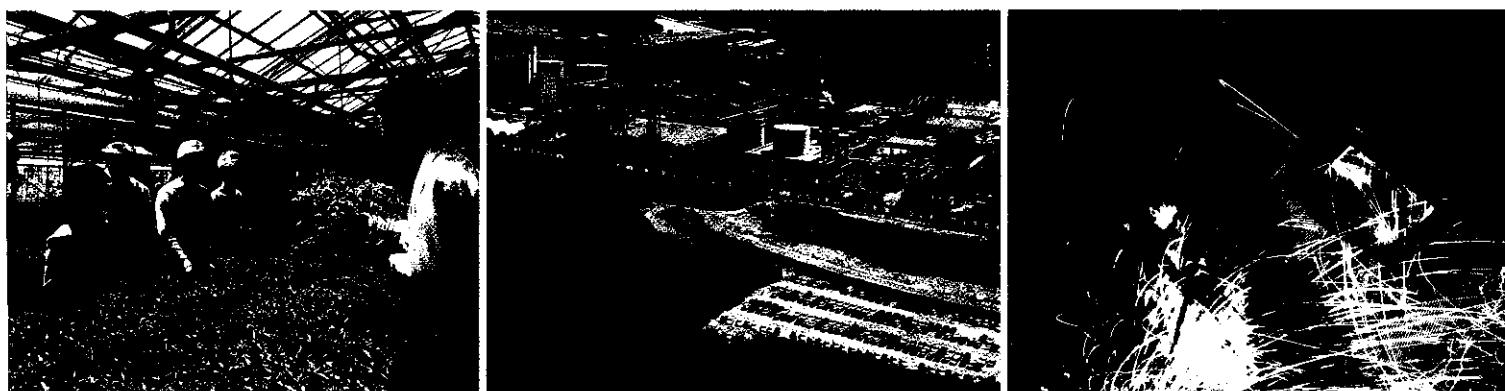
**위치 :** 충주시 목행, 금능, 용탄동 일원 **면적 :** 1,286천m<sup>2</sup>  
**입주업종 :** 전기전자, 비금속, 석유화학, 음식료품, 금속기계, 제지인쇄 등  
**입주업체 :** 28개 업체  
**교통 :**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에서 9km

**충주 제2지방산업단지**

**위치 :** 충주시 목행, 용탄동 일원 **면적 :** 1,049천m<sup>2</sup>  
**입주업종 :** 음식료품, 비금속, 석유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입주업체 :** 46개 업체  
**교통 :**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에서 11km

**중원지방산업단지**

**위치 :**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일원 **면적 :** 343천m<sup>2</sup>  
**입주업종 :** 전기·전자, 기계 및 조립금속, 섬유·의복, 화학, 음식료품, 기타 제조업  
**입주업체 :** 32개 업체(입주계획)  
**교통 :**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IC에서 7km, 충주IC에서 12km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종합지원을 합니다.****경영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설, 운전자금 지원,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행정처리 간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합니다.

**세제지원**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50% 감면  
**지방세 :** 등록세, 취득세 – 면제 / 재산세, 종합토지세 – 5년간 50% 감면

**가주농공단지**

**위치 :** 충주시 가주동 일원 **면적 :** 131천m<sup>2</sup>  
**입주업체 :** 11개 업체  
**교통 :**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에서 7km

**가금농공단지**

**위치 :** 충주시 가금면 가총리 일원 **면적 :** 154천m<sup>2</sup>  
**입주업체 :** 16개 업체  
**교통 :**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에서 9km

**용탄농공단지**

**위치 :** 충주시 용탄동 일원 **면적 :** 192천m<sup>2</sup>  
**입주업체 :** 14개 업체  
**교통 :**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에서 7km

**주덕농공단지**

**위치 :**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일원 **면적 :** 155천m<sup>2</sup>  
**입주업체 :** 12개 업체  
**교통 :**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에서 6km

## 생산·주거·상업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제천지방산업단지(바이오밸리)

제천지방산업단지는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손색이 없도록 오랜 기간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생산, 주거, 상업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단지로 개발함으로써 경제성과 입지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산업단지의 전형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위치 | 충북 제천시 왕암동 일원(1,195천m<sup>2</sup>)

사업기간 | 2001~2004

유치업종 | 의약제제·한방바이오, 음식료품,

전기·전자·반도체, 의료·정밀·광학기기 등(12개 업종)

인센티브 | 입지보조금 50%, 시설투자보조금 등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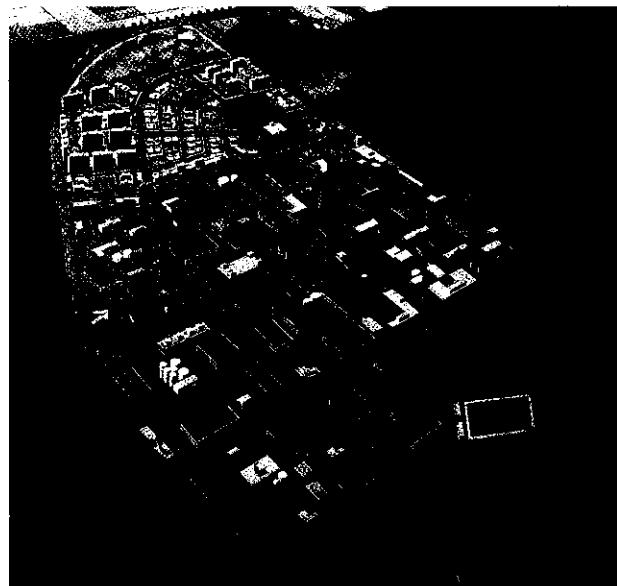
조세지원 | 취득세·등록세 전액 감면, 법인세·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100%감면, 그후 2년간 50%감면

금융지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상자금 지원

(업체당 13억원이내 : 시설자금 10, 운전자금 3)

※제천시 3% 이자 보전



### 탁월한 비용절감 효과

- 각종 금융지원 및 세제 감면 혜택, 저렴한 분양조건
- 공장이주 및 창업에 최선의 대안 및 충분한 경제적 효과 제공

### 최고의 입지 효율성

- 청정지역 제천은 쾌적한 주거 및 작업환경 충족
- 대덕밸리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하여 풍부한 연구개발시설 및 고급인력 제공
- 편리한 교통, 정보통신체계, 그리고 배후도시를 통한 전문기술인력 확보 용이

### 기반시설 완비

- 기업이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용수, 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축으로 별도의 시설 없이 공장건축 가능



### 물류 유통시설 원활

- 제품 및 원자재 수송에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잘 연계되어 있어 물류유통비용 및 시간 절감
- 제천물류유통허브단지(봉양)건립으로 물류비의 획기적 절감

### 배후도시 확보

- 각 산업단지별로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배후도시를 확보하고 있어, 노동력 확보 및 판로 용이  
(인근 12개 대학과 4개 배후도시 위치)

### 풍부한 공업 및 생활 용수

- 각 산업단지별 공장가동에 충분한 공업용수 및 주거환경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

### 대금 완납 전 사용가능

- 언제든지 입주 가능
- 계약 후 중도금 9%이상을 철거이행보증금으로 납부 시, 담보 없이도 토지사용 가능
- 공장건설에 필요한 초기자금 절감 효과

### 제천농공단지가 첨단 명칭과 함께 북부권 지역혁신거점을 만들어 갑니다.

제천시는 기존 5개의 농공단지별 명칭을 21세기 세계화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현실감각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 지역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자 테크노빌	강제동 일원	142천m <sup>2</sup>	18	309	중앙고속도로 제천IC에서 9km		
고암 테크노빌	고암동 일원	168천m <sup>2</sup>	23	445	중앙고속도로 제천IC에서 12km		
금성 테크노빌	금성면 양화리 일원	86천3m <sup>2</sup>	12	111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에서 3km		
대림 세라믹단지	봉양읍 주포리 일원	133천m <sup>2</sup>	4	264	중앙고속도로 제천IC에서 3km		
송학 테크노빌	송학면 사곡리 일원	90천m <sup>2</sup>	11	205	중앙고속도로 제천IC에서 15km		

## 균형발전과 도농상생의 핵심거점 보은·옥천·영동산업단지

보은·옥천·영동지역은 바이오농업 특화와 함께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줄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 보은

구분	단지(업체)명	소재지	조성면적	교통	주요업종
농공단지	(주)한화보은공장	내복면 염둔리	3,982천m <sup>2</sup>		화학제품, 조립금속
	보은농공단지	보은읍 금굴리	69천m <sup>2</sup>	영동 IC에서 31km	식품(김치, 과자)
	외속농공단지	외속리면 구인리	280천m <sup>2</sup>	영동 IC에서 36km	건축자재, 식품
	삼승농공단지	삼승면 우진리	150천m <sup>2</sup>	영동 IC에서 26km	관류, 건축자재

### 바이오농산업단지

남부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충북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위치 | 보은군 삼승면 일원
- 기간 | '07년 ~ '14년(7년간)
- 규모 | 330만m<sup>2</sup>(100만평)
- 사업비 | 3,400억원
- 유치업종 | 기능성식품, 신소재산업, IT, BT 등 첨단산업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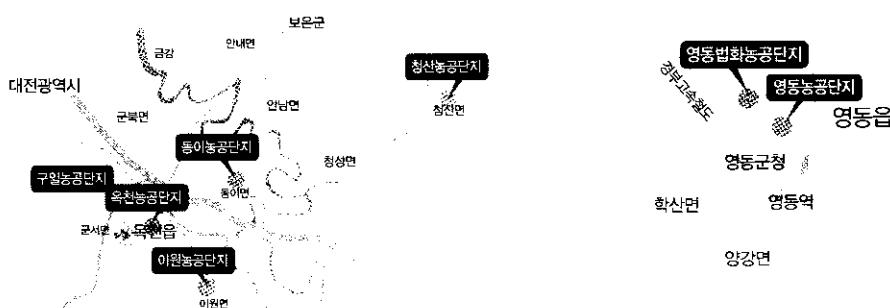


**옥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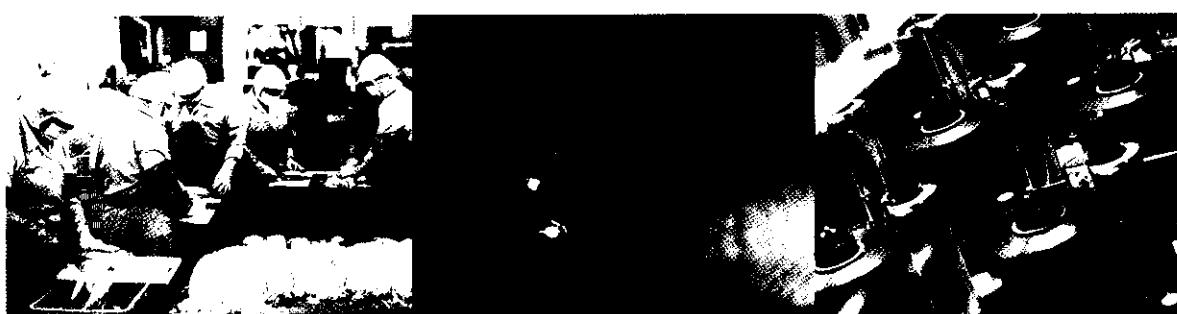
단지명	소재지	조성면적	교통	주요업종
동이농공단지	동이면 적하리	161천m <sup>2</sup>	옥천 IC에서 10km	테이프, 안경렌즈
청산농공단지	청산면 효목리	65천m <sup>2</sup>	옥천 IC에서 36km	변압기, 식품
이원농공단지	이원면 건진리	141천m <sup>2</sup>	옥천 IC에서 12km	자동차부품, 절연전선
옥천농공단지	옥천읍 동안리	282천m <sup>2</sup>	옥천 IC에서 2km	과자, 주류, 건축자재
구일농공단지	옥천읍 구일리	132천m <sup>2</sup>	옥천 IC에서 5km	농기계, 자동차물류

**영동**

단지(업체)명	소재지	조성면적	교통	주요업종
영동농공단지	영동읍 계산리	71천m <sup>2</sup>	영동 IC에서 12km	금속제품, 화장품
영동법화농공단지	용산면 법화리	123천m <sup>2</sup>	영동 IC에서 3km	금속제품, 식품
용산농공단지	용산면 백자전리	262천m <sup>2</sup>	영동 IC에서 2km	자동차부품, 섬유

**기타단지**

- 농특산물 가공공장(농특산물 가공공장, 연구소, 실험재배지 등)
- 농특산물 유통센터(상업시설, 유통시설, 부대시설 및 기타 조경휴게지 등)



## 고부가가치 친환경 충북농업

이제 충북농업의 패러다임이 생존수준에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바이오 친환경농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맛을 넘어 멋과 무병장수, 안전한 고품질 먹거리의 개념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충북농업의 희망과 기회가 있습니다.

## 바이오 친환경농업 – 발전전략이 있습니다.

한약재 · 과수(제천, 충주, 단양), 원예 · 화훼(진천, 음성), 인삼/잡곡(괴산, 증평, 보은), 식량 · 물류(청주, 청원), 바이오농업권역(보은, 옥천, 영동) 등 5대 권역 특화단지를 육성, 바이오농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 농업도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바이오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학과 연계한 산 · 학 · 연 · 관이 참여하는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충북대 바이오농업인 육성, 영동대 기능성 식품 개발, 농업기술원 기능성 농산품 개발 등 상호 협력시스템을 갖추어 연계체제를 강화합니다.

## 바이오 친환경농업의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합니다.

바이오친환경농업을 농산품, 축산, 산림 등 3개의 핵심분야로 중점 육성하여 국내 · 외 시장을 공략합니다.  
또한 동식물유전자은행을 설립하여 멸종위기의 토종가축, 천연기념수 등 유전적 우수 동식물을 보존 ·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고부가가치 바이오친환경 농업 집중 육성, 기능성 바이오식품 개발 및 명품화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축산의 확산,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대량이식 및 고급육 생산



약리 · 치유 기능의 특수수종 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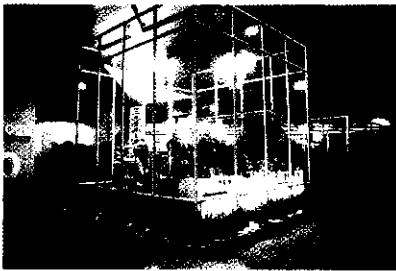
**농업인** 바이오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업** 우수 바이오친환경특산품 유통

행 · 자정적 지원과 판로개척

기술 · 기관 · 우수품종과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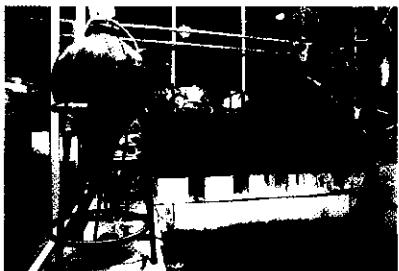




바이오팜 – 대량재배가 어려운 고부가가치 작물을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는 미래의 농장



산삼, 승이, 감자 등을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바이오 리액터



## Bio Agriculture

### 바이오농업육성 세부추진계획

#### 기본계획

계획기간 : 2004 ~ 2013(10개년) 투자예산 : 69개 사업 5,210억원

#### 분야별 투자계획

바이오농업 클러스터 기반구축 : 1,222억원

단지조성, 종합연구지원센터, 바이오 체험·전시관, 유통·보급센터 등

바이오 특화작물 생산기반 조성 : 1,808억원

청정 고품질쌀 생산단지(937억원), 왕겨 유기자원화 시설(70억원) 등

바이오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 1,604억원

바이오생명공학연구센터(150억원), 첨단 바이오동물 시험사육시설(150억원) 등

바이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349억원

바이오 조림사업(63억원), 건강식품용 버섯생산단지 조성(201억원) 등

바이오 농작물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 227억원

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21억원), 바이오농업 컨설팅(48억원) 등



### 농가의 부가소득이 향상됩니다.

- 녹색농촌관광마을, 산골체험관광마을, 농촌전통문화 계승 테마마을, 토속품/특산품 등  
농산물 쇼핑관광코스 및 상품을 개발하여,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합니다.
- Wood Land, 생태숲 등 조성
  -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 확대
  - 생태친화적 산간지역 개발

### 사이버농업이 정착됩니다.

- 정보화마을 조성, 농기홈페이지 무상 구축,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킵니다.
- 농업인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 확대
  -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 해외시장을 개척합니다.

- 농산물 국제시장 개방에 따른 기능성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며,  
시장지향적 마케팅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합니다.
- 전문수출업체 초청 산지수출상담회 개최
  - 신규품목 개발 및 물류비 지원
  - 국제농수산식품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확대 등

###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 첨단 하이테크 농업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듯 우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컨설팅, 국내·외 벤치마킹, 전문기관 교육 위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 품목별·특성별 우수농업인 사례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 으뜸농업인을 선정하여 자금·기술·정보 집중 지원



## 인적자원

충북 도내에는 특수목적 대학을 포함하여 13개 전문대학,

2개 기능대학 등 총 20개의 다양한 대학이 있다.

충북의 풍부한 교육인적자원은 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되

는 전문대학,

입니다.

##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 지역사회 밀착형 대학 실현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격 지식과 정보를 생산·공급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대학을 실현합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의 학습터전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 대학별 지식정보자료의 특성화

청주(인쇄), 옥천(작목), 영동(국악), 충주(과수), 청원(바이오), 제천·단양(생명숲) 등 지역별로 특정분야의 정보습득이나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지식정보자료의 특성화를 유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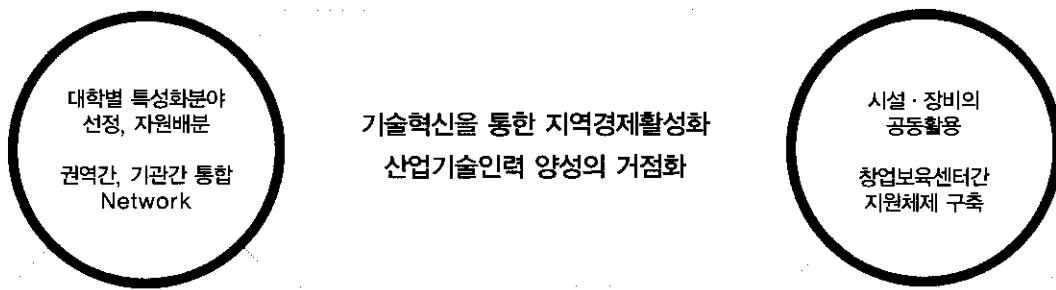
### 인재양성을 위한 종체적 협력

충북 총학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성화사업 개발 및 수행을 위한 대학간의 대·중·소규모의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대학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기술인력 양성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 충북지역 대학 분포 현황 ( )는 총 재직 인원

지역구분	4년제 대학	특수목적 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청주, 청원, 증평, 과산권	충북대학교 (21,674) 충주대학교(18,305) 서원대학교(9,327)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2,393)	한국교원대학교(2,647) 청주교육대학교 (1,975)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572) 공군사관학교	충청대학(8,471) 주성대학(5,770)	한국폴리텍IV 청주대학(773)
충주, 제천 음성권	충주대학교(11,433)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10,919) 세명대학교(11,956) 극동대학교(3,853)		대원과학대학(4,714) 극동정보대학(6,135)	한국폴리텍IV 제천대학(426)
영동, 옥천권	영동대학교(3,715)			충북과학대학(1,511)

### 충북지역 대학 협의체의 기능 · 역할



### 대학 특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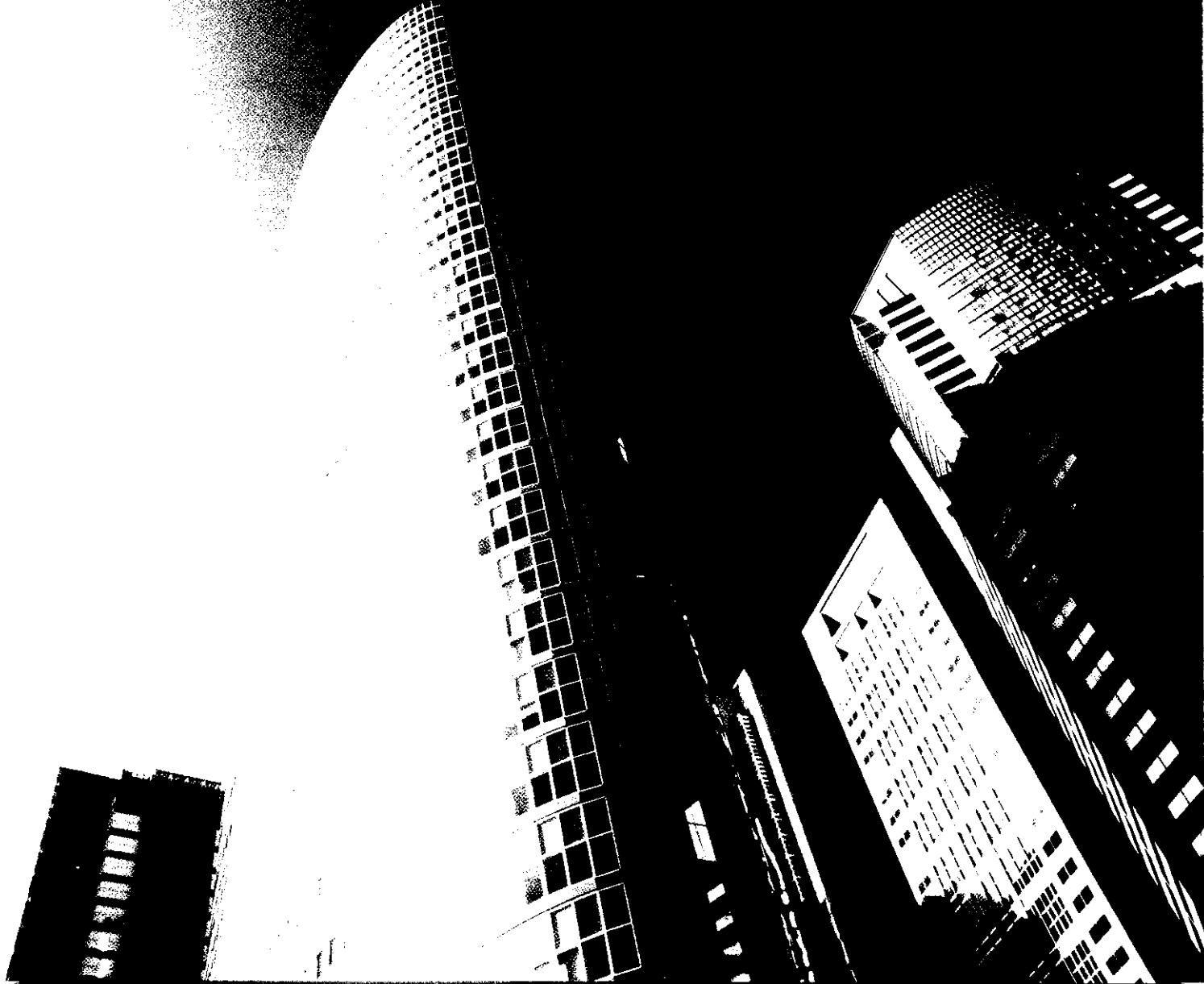
사업별	참여대학수	(2007 현재) 사업비(억원)
산 · 학 · 연 컨소시엄	12	87
지역협력연구센터(RIC)	6	596
지역우수대학원육성(BK21)	1(5개분야)	380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10	160
지역혁신(RIS)시범	2	63
산학협력중심대학	3	250
전문대 특성화	4	77
IT협동화	1	395
지방연구중심대학	1	270
디자인기반 혁신	1	7
계 (10개 사업)		2,198



## 신도시 건설

### 지역

최첨단 인프라  
지역 성장 기반



## 동북아 생명과학 거점도시 – 오송신도시

오송 신도시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인구 10만명 규모의 특화된 자족형 혁신도시입니다.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원에 위치합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북쪽 12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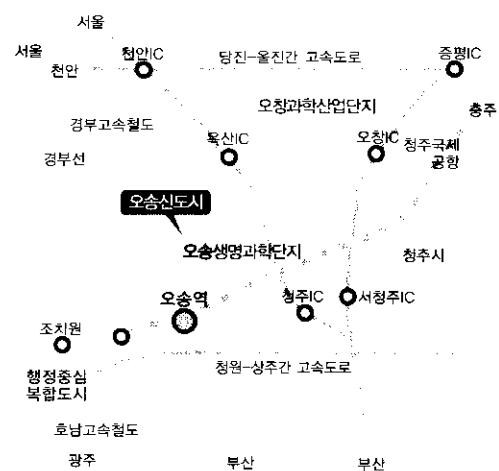
면적 26.45km<sup>2</sup>(약 800만평), 인구 10만명 규모의 도시입니다.

- 시행중 : 오송단지(4.63km<sup>2</sup>)
- 1단계('06-'15) : 산업단지, 역세권(5.95km<sup>2</sup>)
- 2단계('16-'20) : 주거, 문화, 여가(3.3km<sup>2</sup>)
- 3단계('21-'25) : 휴양, 위락, 물류(2.82km<sup>2</sup>)
- 보존지역(9.75km<sup>2</sup>)

특화된 자족형 혁신도시로 건설됩니다.

- 오송단지의 R&D기능 지원 및 중부권의 특성화된 자족도시
- 풍요로운 주민생활이 우선되는 최첨단의 환경친화적 생태·문화·웰빙도시
- IT·BT산업이 집적·융합된 유비쿼터스 도시
-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구축된 지역혁신체계 도시

→ 동북아 생명과학 거점도시로 육성



## 국토 동서 개발축의 중심 – 진천·음성 혁신도시

테헤란로–분당–용인–음성/진천–청주–대덕을 잇는 벤처대간의 중부거점이며,  
서해안–공주–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진천/음성–강원–동해안을 잇는 신흥 동서 개발축의  
내륙관문역할을 수행합니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위치합니다.

- 2006 ~ 2012년(7년간)

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관련 산·학·연  
정주시설이 건립됩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첨단 R&D 이노밸리로 건설됩니다.

- 혁신창출, 이전기관 및 기업 지원, 지역 전략산업과 융합된 기술복합도시
- 휴양과 문화 산업이 어우러진 유비쿼터스 문화산업도시
- 물과 녹지,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순환 녹색도시



## 천혜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 제천 종합연수타운

자연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한 친환경 공간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수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신월동 봉양읍 일원에 위치합니다.

- 2006~2012(7년간), 3.65㎢(110만평)

3개의 공공기관(교육연수기관)이 이전하고 관련  
산·학·연, 정주시설이 건립됩니다.

-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

국내 최고의 연수기능 맞춤형 환경으로 건설됩니다.

- 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센터 설립 지원
- 연수기관의 접근성을 통한 행정서비스 중심지 조성(공유)  
회의장, 식당, 쇼핑, 문화예술, 숙박, 체육시설 등
- 자연속 친환경 전원 주택단지 조성 분양
- 연수타운내 교육기관 지원전용 골프장 조성(9홀)
- 단지내 특목고 설립 및 외국어 마을 조성
- 연수타운내 순환 셔틀버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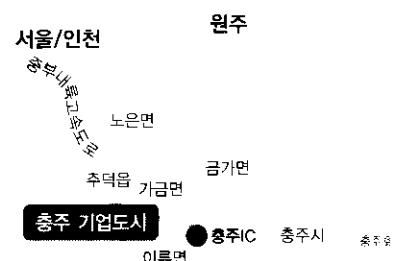
# 지식기반형 Green Technopolis – 충주 기업도시

지역균형발전, 투자활성화, 고용창출, 미래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기반형 · 자족형 복합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충북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 가금면 일원에 위치합니다.

면적 7km<sup>2</sup> (213만평), 인구 2만1천명 규모의 도시입니다.

- 추진기간 : 1단계(2005~2011년), 2단계(2012~2020년)
- 참여기업(6) : 포스코건설(주), (주)임광토건, 동화약품공업(주),  
포스데이터(주), (주)엠코, 대한주택공사



지식기반형 친환경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됩니다.

- IT · BT 부품소재산업의 R&D 생산체계 등 클러스터 구축
- 오염물질 무배출, 자연생태 복원이 가능한 친환경 청정도시
- 양질의 교육환경, 환경친화적 거주 공간의 쾌적한 유비쿼터스 도시









도금성봉

##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오래 바라보면 질릴 것만 같은 친란한 풍광이 아니다. 충북은 담백하다.  
색깔이 요란하지도 않다. 화장기 없는 여인의 얼굴, 그러면서도 그윽하고 해맑은 이미지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결코 천박할 수 없는 품위와 격조가 있다.

글\_ 한수산\_ 작가, 세종대 교수

그립고 아름다운 고장, 충북. 어디를 가도 내가 여기 살았던 것만 같은 따스함이 고여 오는 마을들, 이 비밀스런 친근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내가 자란 강원도 그 가운데서도 대관령 서쪽이 되는 영서지방과 산하가 많이 닮아 있는데서 오는 화해인가, 아니면 사람살이나 말투가 모가 나지 않는데서 오는 넉넉함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만도 아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특이한 감동을 받았었다. 태조 왕건이 신령이 있다 하여 성거산이라 부르게 했다는 천안 부근의 성거산에 올랐을 때였다. 이곳 특산물인 성환배며 거봉포도의 주산지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다. 멀리 저수지가 보이고 마을이 보이고 길이 보였다. 한국의 어느 곳과도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땅 우리의 세상살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나는 '저것이 한국의 원형은 아닐까' 하는 감동을 받았었다.

한국의 원형, 그 원형질이 녹아 스며들어 있는 곳...충북은 나에게 그런 곳이다. 옛날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은 말했었다. 세상에는 살고 싶은 곳이 있고, 가 보고 싶은 곳이 있으며, 그리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한번 가보고 싶은 곳과 살고 싶은 곳이 같을 수 없다. 가 본다는 것은 한때의 기쁜 나들이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현실이며 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북의 이곳저곳을 찾아갈 때면 나는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만나는 특이한 체험을 한다. 와 보기로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한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 저려하면서 바라본 곳이 얼마나 많던가. 사람에게 그 곳에서 살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고장이다, 충북은.

오래 바라보면 질릴 것만 같은 친란한 풍광이 아니다. 충북은 담백하다. 색깔이 요란하지도 않다. 화장기 없는 여인의 얼굴, 그러면서도 그윽하고 해맑은 이미지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결코 천박할 수 없는 품위와 격조가 있다.

어디에서 충북으로 들어서든 "청풍명월의 고장에 어서오십시오" 하는 안내판을 볼 때마다 나는 이상스레 아주 따스한 움집, 어떤 것에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왜일까. 무엇이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충북의 산하는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넉넉하다. 그 품안에 충북이 껴안고 있는 저 수많은 문화유적과 절경을 이루 다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추억이 묻은 장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가는 즐거움이 된다.

청주로 들어가는 나들목을 장식하고 있는 가로수길은 전국에서도 아름답기로 이름이 드높다. 나는 이곳을 내 작품 '부초'가 영화화되어 청주에서 로케가 있을 때 처음 만났었다. 영화 '부초'와 얹혀서 내게는 꿈같은 추억이 되었다.

그러나 자연과 유적과 풍광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거기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내 주변에는 아주 정깊고 그윽한 충북 사람들이 있다. 언제 생각해도 넉넉하기만 한 그런 사람들이다.

나는 한때 제주에 살았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보내고 제주를 떠나며 내가 가장 많이 찾은 곳이 제주의 어디었나를 생각했을 때였다. 아름답게 바닷물결 철썩이는 해안도 계절에 따라 변하는 한라산의 그 환희에 가까운 변화도 아니었다. 화북이라는 한적한 어촌마을이었다. 볼 것도 없고, 겨울이면 까마귀가 떼지어 우짖는 곳, 그곳이 내가 가장 많이 찾은 곳이었다. 추사 김정희가 유배를 오며 처음 발을 디뎠다는 곳으로 알려진 그 화북에는 내가 존경하게 된 제주의 서예가 김광추 선생이 계셨기 때문이었다. 사람인 것이다. 어떤 자연풍광 보다도 사람이 아름다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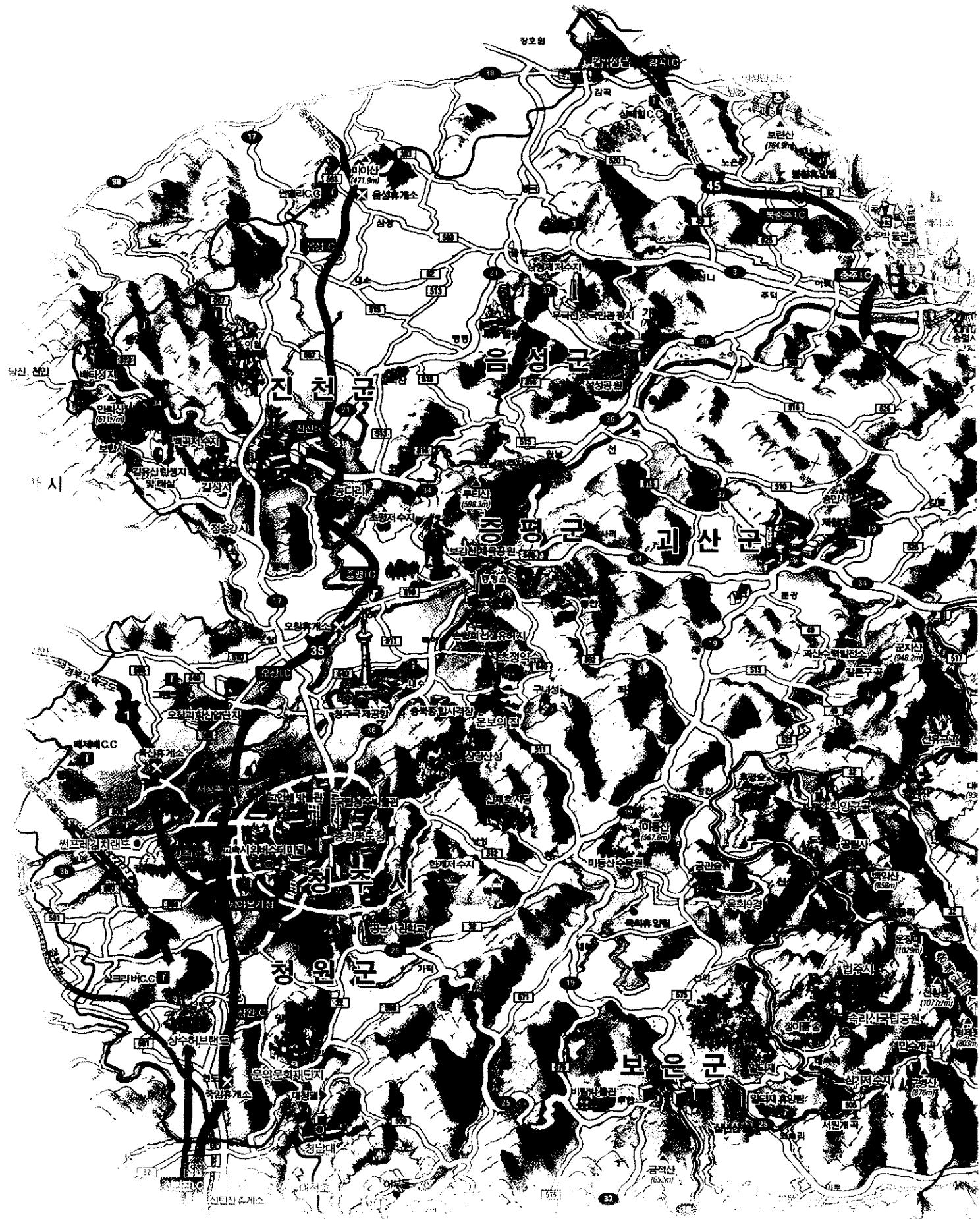
구학산과 박달재가 솟아 있는 계곡에 길게 자리잡은 베론, 지형이 배 밑바닥 같이 생겼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의 이곳도 최양업 신부의 흔적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충북이다. 치악산에서 훌러내려 제천천을 이루고 다시 충주호로 훌러드는 물굽이가 만들어낸 조그마한 계곡 탁사정을 지나 나는 이곳으로 가곤 한다. 이제 그곳은 내게 살아있는 추억이 되었다.

어찌 그곳만이랴. 때로는 진천을 지나 백곡면을 거쳐서, 때로는 고속도로 안성IC에서 나와 배나무 고개를 넘어서 나는 배티로 간다. 이곳도 최양업 신부님이 머물렀던 곳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고장은 한 사람에게 절실한 무엇이 된다.

그리고 충북에는 이모가 있었다. 다감했던 그분은 어린 시절 놀려 가면 아침마다 우리들을 깨웠었다. 깨우기는 깨우는데 "일어나거라, 일어나야지" 하시면서 오히려 이불을 덮어주던 분이었다. 더 자라서는 "몸 상한다, 술 그만 먹어라" 하면서도 오히려 잔에 술을 가득가득 부어주시던 분이었다. 나는 그분에게서 충청도의 어떤 원형을 본다. 그리고 그리워한다.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충북을 지나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충북은 우리 국토의 한 가운데 자리하면서 단순한 교통의 중심지로써가 아니라 정서와 영혼의 한 가운데에 우뚝 서 있다. 그렇게 한국인의 심성을 옮기게 지켜가고 있는 곳, 그래서 더 아름답고 그리운 고장이 아닌가.

충북은.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그런 고장.





직지, 대통령의 별장, 초정약수  
화양계곡 그리고 농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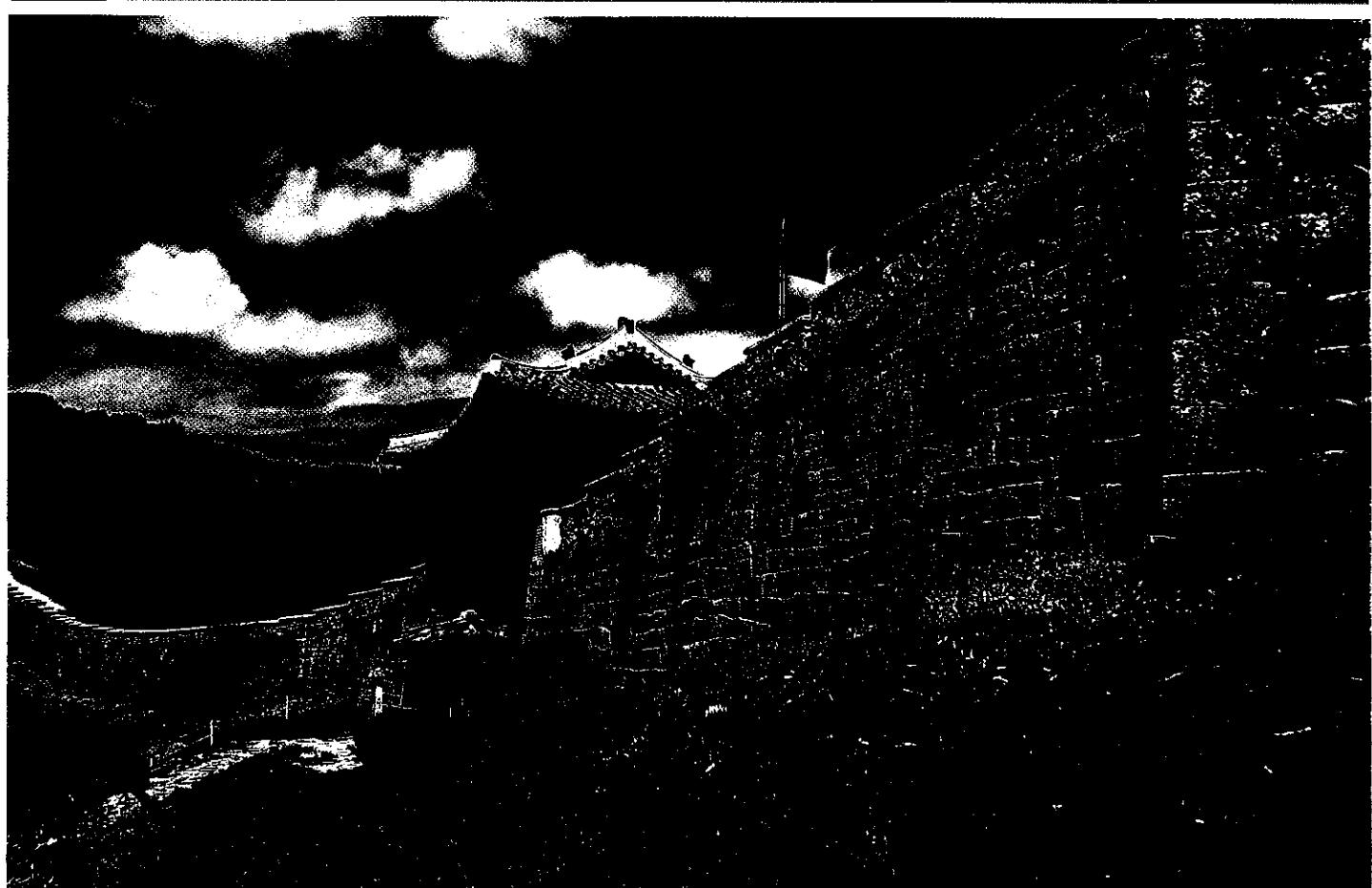
## 몸도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중부권 문화관광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의 고장 청주,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

세계 광천학회에서 미국의 샤스터와 영국의 나포리니스와 함께 세계 3대 광천수로 꼽는  
청원 초정약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다운 화양계곡,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진천 농다리.

중부권에는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아름다운 힘이 있습니다.

- 청주
- 청원
- 괴산
- 증평
- 진천
- 음성



상당산성

## 교육의 혼이 살아있는 맑은 고을 – 청주

독일 구텐베르크 활자본보다 70여년이나 앞선 세계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의 고장, 활력이 넘치는 문화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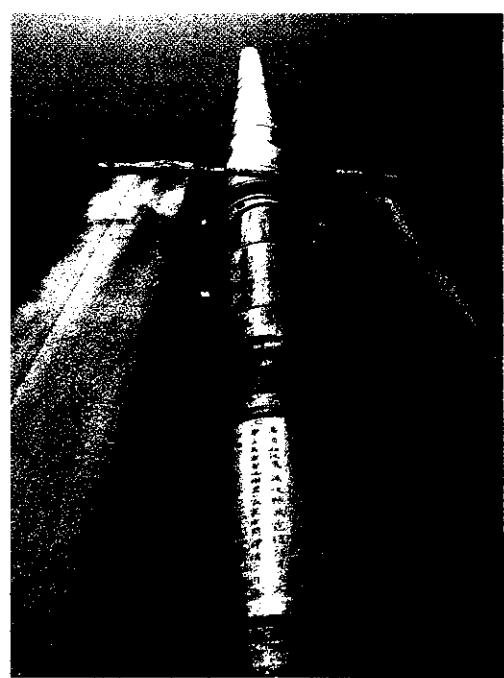
**안내** 청주시 문화관광과 043-220-6922 [www.cjcity.net](http://www.cjcity.net)



홍덕사지



청주시 진일로(가로수길)



철당전(국보 제41호)

**축제**

- 4월 | 청주예술제  
 9월 | 직지축제  
 격년 10월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10월 | 충북청풍명월예술제

청주직지축제 | 직지의 청조선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축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 청주를 공예문화 및 교역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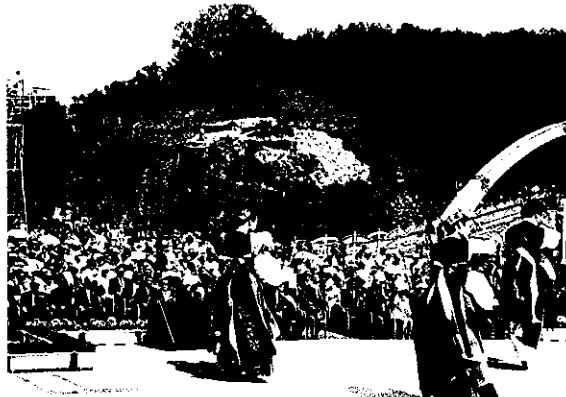
청주예술제 | 창작과 예술로 품격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개발하기 위한 예술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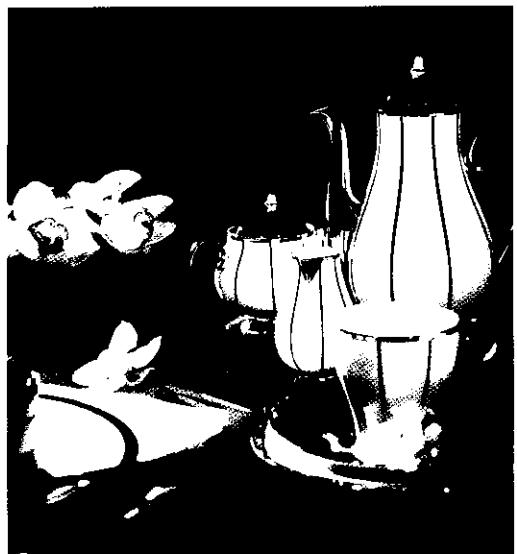
청주직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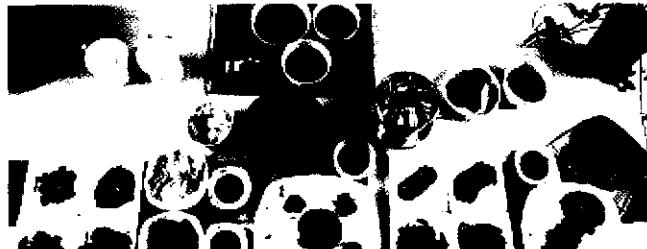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청주예술제

**특산품과 향토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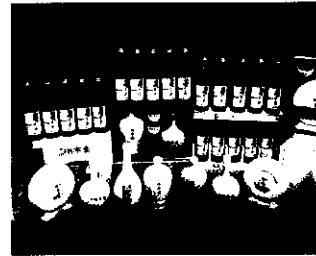
한국도자기



청주한정식



청주올갱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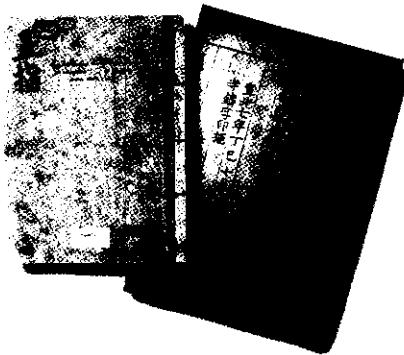


대주술



## 커뮤니케이션 혁명, 직지

글\_ 박문열 청주대학교 교수, 박물관장



금속활자본 「직지」의 표지와 간기

우리 민족은 일찍이 '1230년대 이전'에 이미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인쇄술을 발명하고 이를 통하여 상정예문(詳定禮文), 남명천화상승증도가(南明泉和尚顛鑄道歌), 직지(直指),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儀法集解) 등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들 중 직지 하권 1책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전래되고 있을 뿐, 애석하게도 다른 금속활자본의 실들은 국내외 어디에도 전해지지 않는다.

직지는 금속활자인쇄술로 찍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다. 직지의 본래 책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나, 간략히 불조직지심체요절 또는 직지라고도 한다. '직지'의 의미는 참선을 통하여 도를 깨달으면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가 된다는 뜻이다. 직지에는 역대 부처님과 조사(祖師)들의 개(偈)·송(頌)·찬(讚)·가(歌)·명(銘)·서(書)·법어(法語)·문답(問答) 중에서 선(禪)의 요점을 깨닫는데 필요한 154가 307편의 구절이 수록되어 있다. 직지의 저자 백운화상(白雲和尚, 1298~1374)은 1298년에 전라도 고부(古阜)에서 출생하여 1351년(54세)에 중국 호주(湖洲) 하무산(霞霧山)의 천호암에 주지하던 석옥 청공선사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1353년(56세) 정월에 마음을 밝혀 도를 체득하였다. 귀국 후에는 황해도 해주의 안국사와 산광사 등에서 주지하다 1372(75세)에 성불산에서 직지 2권을 저술하였으며, 1374년(77세)에 경기도 여주의 취암사에서 입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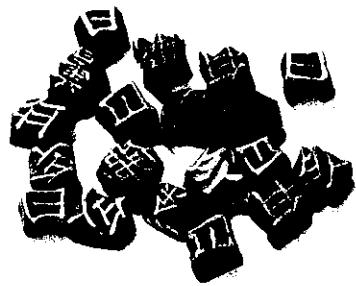
금속활자본 직지의 권말에는 "선향칠년정사칠월일(宣光七年丁巳七月日) 청주목외(淸州牧外) 흥덕사주자인사(興德寺鑄字印施)"라는 간행의 기록이 있다. 이는 직지가 고려 우왕 3(1377)년 7월에 청주목 외곽에 있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인쇄술로 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금속활자본 직지는 중국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춘추번로(春秋繁路)보다 140여년이나 앞서 간행되었으며,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구텐베르크(Gutenberg)의 42행성서(The 42-line Bible)보다는 70여년이나 앞서 간행되었다.

청주 흥덕사는 재래식방법으로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직지를 간행함으로써, 당시 원나라의 글육적인 지배를 받아 그 기능이 마비되었던 고려 중앙정부의 금속활자인쇄술의 맥을 다시 이어준 충북정신(忠北精神)이 표출된 사찰이다.

그러나 직지를 간행한 흥덕사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가, 1985년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흥덕사지가 발굴됨으로써 비로소 그 위치가 밝혀졌다. 1986년 충청북도 주최로 열린 '청주 흥덕사지 학술회의'를 통하여 직지와 흥덕사가 학계의 인정을 받은 결과, 현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6번지 일대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흥덕사가 복원되어 있으며 고인쇄전문박물관인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개관되어 있다. 청주시는 흥덕사의 금속활자인쇄술과 친란했던 우리나라 고인쇄출판문화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보다 70여년 앞서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은 인쇄술에서 시작되었다.  
인쇄술의 꽃인 금속활자인쇄술(金屬活字印刷術)을 세계 최초로  
발명한 민족은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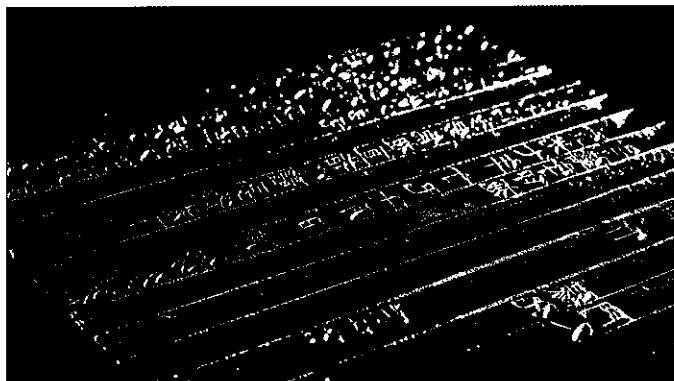


(古印刷出版文化)를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직지를 주제로 한 2000년의 '청주인쇄출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 2001년 6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 유치와 2001년 9월 4일에 직지를 유네스코(UNESCO) '세계의 기억(the Memory of the World)'에 등재시킨 것, 2003년부터 해마다 '청주직지축제'를 개최하는 것, 2004년에 유네스코 '직지상'을 제정한 것 등 직지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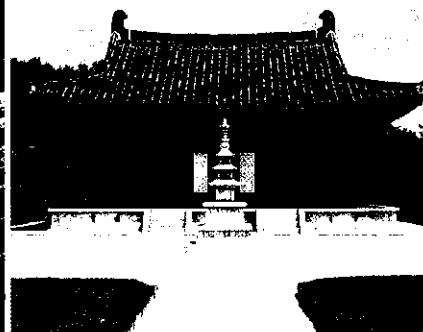
현재 흥덕사가 위치했던 청주시를 비롯한 충청북도 지역은 우리나라 금속활자인쇄술의 중흥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라는 세계 금속활자인쇄술의 발상지로 그 명성을 드날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충북정신을 비롯한 우리민족의 과학정신과 우수성을 세계에 자랑하는 표상인 것이다.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또다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 다가올 것임이 틀림없다. 이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은 우리 선조들의 친란했던 과학정신과 개척정신을 계승하는 일뿐이다. 직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오더라도 충북의 정신은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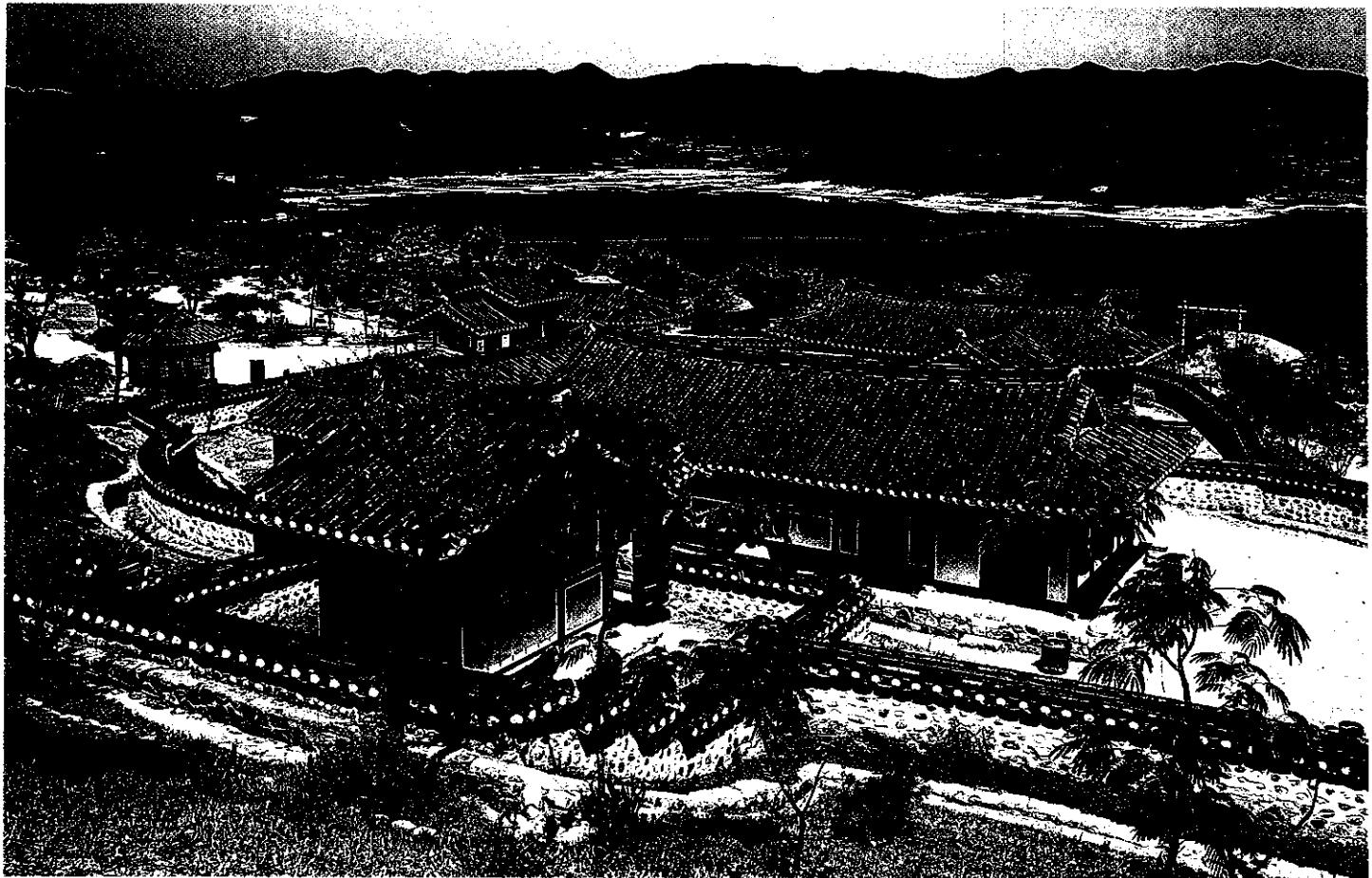
우리 선조들의 친란했던 과학정신과 우수성을 계승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충북인의 정신이고, 미래 충북의 희망이다. 선조들의 '직지정신(直指精神)'을 되살려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직지문화(直指文化)'를 창조하여 발전시켜 나갈 때, 충북정신은 다시금 세계 속에서 친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발굴된 흥덕사지



문화의 문화재단지

## 문화의 향기 그윽한 전원도시 - 청원

1983년부터 20여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이 별장으로 이용했던 청남대가 있으며, 예부터 병이 낫는다는 신비의 물로 알려진 세계 3대 광천수중 하나인 초정약수가 있습니다.

안내 청원군 문화공보과 043-251-3226 [www.puru.net](http://www.puru.net)



운보의 집



손병희선생유허지



옥화9경



상수허브랜드

## 축제

5월 |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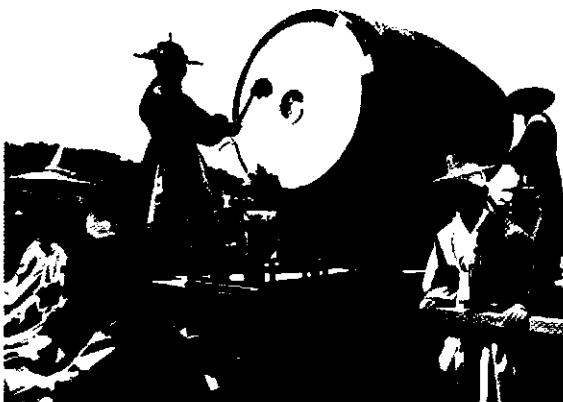
10월 | 청원생명쌀축제, 청원생명쌀대청호마라톤대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제 안실을 치료하기 위해 초정약수를 찾아 행사했다는 세종대왕과 소현왕후의 어가행단을 재현

대청호마라톤대회 | 매년 가을 국민화합을 위해 개최되는 문화축제



해맞이축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제



대청호마라톤대회

## 특산물과 항로음식



청원농특산물



히브비빔밥



콩두부전골

## 청남대, 상쾌함과 여유가 있는 산색의 공간

금지된 것에는 본능을 자극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원래부터 깨지기 위해 존재한 듯 금지된 것들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끊임없는 궁금증은 마침내 그 두터운 벽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넘어서게 한다. 일단 호기심이 썩을 트우면 그 열매가 무엇일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우스가 선물한 상자 앞에 선 판도라처럼 가슴 떨리는 긴장감과 희열이 있을 뿐이다. 굳건하게 채워진 금지의 족쇄가 풀린 청남대로 향해 가는 그 날도 이런 상념이 머리에 떠올랐다.

지난 20여년간 최고의 권력을 쥐었던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를 보내며 국정을 구상했던 그곳은 일상의 관광지와는 다를 거라 생각했다.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만큼의 거대하고 무거운 고뇌는 아닐지라도 단순한 호기심의 뒤편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과 '무언가를 얻고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 섞인 조바심이 그곳으로 향하는 내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곤 했다.

청남대로 향하는 길에는 짙푸른 호수를 두른 상큼한 초록이 여행자들을 반기고, 차창 밖으로 고개를 살짝 내밀면 푸르름 속에 떠도는 청아한 싱그러움이 푸른 내음을 날려와 번민에 싸인 도시인에게 달콤한 휴식을 주곤 한다. 길 오른쪽으로 얼핏 얼핏 대청호의 잔잔한 물결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평화로운 풍경을 그려낸다.

호수를 따라난 도로를 달리자 얼마전까지 육중한 덩치로 일반인의 출입을 가로막았을 철문이 빗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

마침내 청원군 문의면에서 청남대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안내소 앞에 멈추고,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은 여자 안내원은 버스에 올라 목소리도 상냥하게 환영인사를 건넨다. 차창 밖으로는 먼저 도착한 관광객들이 차분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청남대의 백미라는 본관과 초가정을 뒤로하고 우선 갈래 길의 오른편에 있는 양어장으로 향했다. 청남대를 둘러싼 아름다운 풍광에 눈을 빼앗기고, 이곳이 전하는 분위기에 젖어들어, 혹시라도 느낄 수 있을지 모를 이곳의 침맛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남대를 돌려줘서 고맙다며 문의면 주민들이 쌓은 높이 2m 가량의 돌탑을 끼고 돌자 양어장으로 향하는 내리막 오솔길이 나타났다.

길가에는 지난봄 화려한 보랏빛으로 흐드러졌을 영산홍이 푸른 잎새로 반기고, 목화는 따가운 가을 햇살에 둥그렇게 망울을 헌창 키워가고 있었다. 오솔길을 걷다보니 갑자기 싱그런 향기가 콧속을 파고들더니 머리 속까지 퍼져간다. 향긋하고 맑은 기운을 찾아 걸음을 옮기자 쪽쪽 뻗은 나무들이 작은 숲을 이루고 있다. 반듯하게 오와 열을 맞춘 연초록빛 메타세콰이어 숲은 맑은 공기를 뿜어내며 이곳을 찾은 이들의 눈과 정신을 맑게 해주고 있었다.

오솔길을 조금 더 내려가자 양어장에는 진초록 연잎이 가득 덮여 있다. 물 속의 빨간 잉어와 붕어들은 주인이 바뀐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가롭게 노닐고, 수면 위로 내민 작은 분수들은 활짝 피어난 연꽃인양 하얀 물줄기를 시원스레 뿜어댄다.

글\_ 사진\_ 임동근  
연합뉴스 월간부, 연합르페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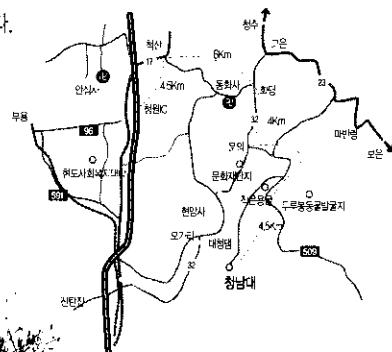


주인이 바뀔 때마다 빛깔과 모양을 달리한 거실의 소파들과 국정을 구성했을 집무실의 책상과 책장 속의 양장본 도서들. 그 안의 사물들은 옛날의 영화로움을 침묵 속에 간직하고 있다.

발길을 돌려 청남대 본관으로 향했다. 길 양편으로는 가지런하게 손질된 반송과 단풍나무들이 도열해 손님들을 맞고 있다. 본관 앞의 작은 정원에는 소나무, 향나무, 단풍나무, 살구나무, 느티나무 등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나무들 뒤로 초록색 기와를 얹은 본관 건물이 형체를 드러냈다. 그러나 대통령 전용별장이었던 곳은 웅장하고 화려할 것이라는 예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서슬 퍼런 신군부시절 지은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내부도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주인이 바뀔 때마다 빛깔과 모양을 달리한 거실의 소파들과 국정을 구상했을 집무실의 책상과 책장 속의 양장본 도서들. 그 안의 사물들은 옛날의 영화로움을 침묵 속에 간직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편안함과 여유로움보다는 고뇌 가득한 표정이다. 휴식을 위한 이 공간도 그들에게는 또다른 구상을 위한 장소였을지 모르겠다.



본관을 나와 산책로를 따라가자 오른쪽으로는 대청호가 한눈에 들어오고 왼쪽으로는 5홀 짜리 미나골프장이 자리하고 있다. 윤기가 날 정도로 잘 둑인 마사토 흙길이 신발 안쪽으로 포근한 감촉을 전해준다. 맨발로 흙길의 부드러움과 건강함을 느껴보고 싶다.

골프장 맞은편의 그늘집에 들러 대청호로 눈길을 던져본다. 파이란 하늘 아래로는 진초록의 호수가 드넓게 펼쳐진다. 물과 맞닿은 야트막한 산들은 경쟁이라도 하는 듯 앞뒤로 중첩되며 호수를 막고 섰다. 그늘집 아래 물가에서는 오리들이 한가하게 물장구를 치고 있다. 마음을 열어주는 여유로운 풍경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전해주는 메타세콰이어 숲.



푸른 상쾌함이 발걸음마저  
가볍게 하는 양어장 옆의 오솔길



본관 2층의 대통령 집무실.  
책상과 서재가 옛날 모습  
그대로 놓여있다.





괴산쌍곡

## 물과 바람, 사람이 맑은 청정지역 – 괴산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의 숨결이 살아있으며,  
선유계곡과 화양계곡을 따라 흐르는 계곡의 절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내 괴산군 관광과 043-830-3223 [www.cbgs.net](http://www.cbgs.net)



공림사



연풍성지



수옥폭포

##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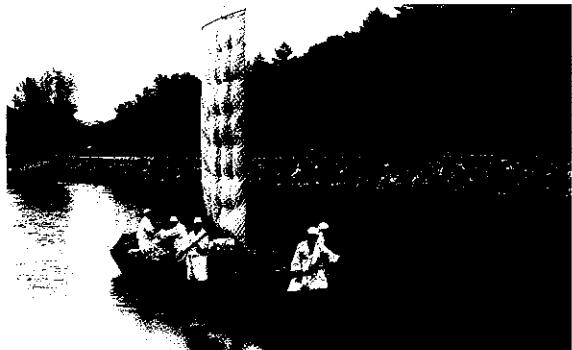
7월 | 대학찰옥수수축제, 청안수박축제

8월 | 괴산청결고추축제, 불정백중놀이

10월 | 괴산문화제, 전국가족등반대회

**괴산청결고추축제** |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청길고추의 고장 괴산에서 전 농업인의 뜻을 모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업 농촌의 이해의 장으로서 농업인이 주관하는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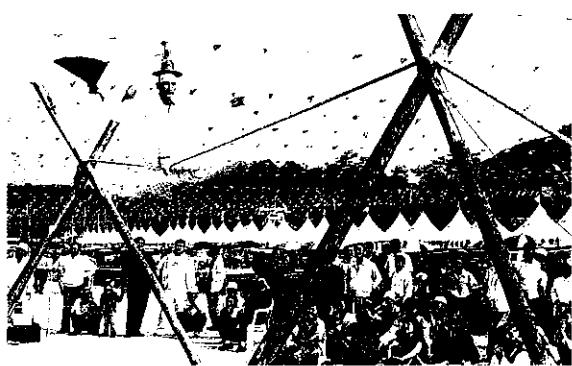
**괴산문화제** | 선조들이 물려준 뿌리깊은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잊혀져가는 우수한 향토문화를 재현



불정백중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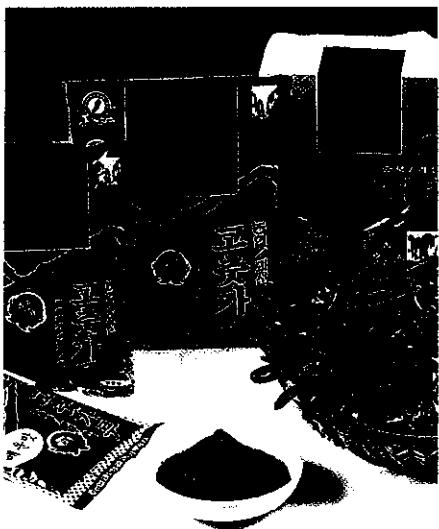


괴산청결고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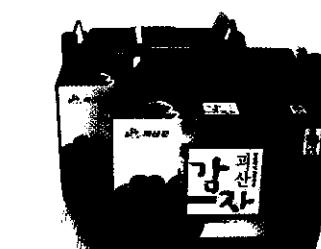


괴산문화제

## 고성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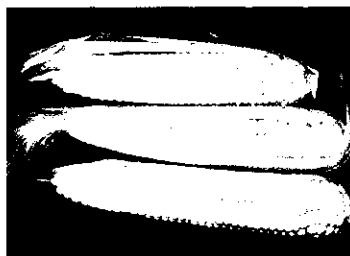
괴산청결고추



비야오씨감자



을갱이국



대학찰옥수수



민물매운탕



두타산

## 인삼과 씨름, 항공우주산업의 도시 – 증평

교통의 요지로 인삼과 씨름의 고장. 그리고 미래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희망과 미래가 있는 도시입니다.  
증평의 젖줄 보강천 공원의 쾌적함과 두타산의 호방한 풍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 증평군 복지문화과 043-835-3531  
[www.jp.go.kr](http://www.jp.go.kr)



남하리3층석탑



보강천꽃밭



보강천 분수대



울리문화체험휴양촌

## 증평군민의 날 증평문화제

6월 | 장뜰들노래나들이 행사

8월 | 증평군민의날 행사

10월 | 증평문화제, 인삼축제, 삼겹살축제

증평인삼축제 | 옛것을 익히고 나아가서 새로운 지식과 견해를 넓혀 증평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인삼축제 및 증평문화제를 개최



증평군민의날



증평인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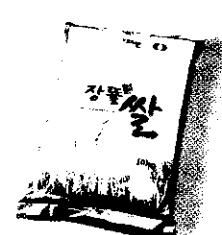


장뜰들노래나들이 행사

## 증평인삼축제



증평인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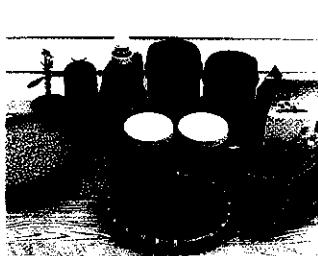
장뜰쌀



인삼찹쌀고추장



평화전통차



죽리도총식품



초평저수지

## 사람살기 가장 좋은 곳 – 생거진천

예부터 사계절의 특징이 뚜렷하며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해온 길상사, 보탑사, 농다리, 초평저수지 등 가는 곳마다 그 명성 그대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현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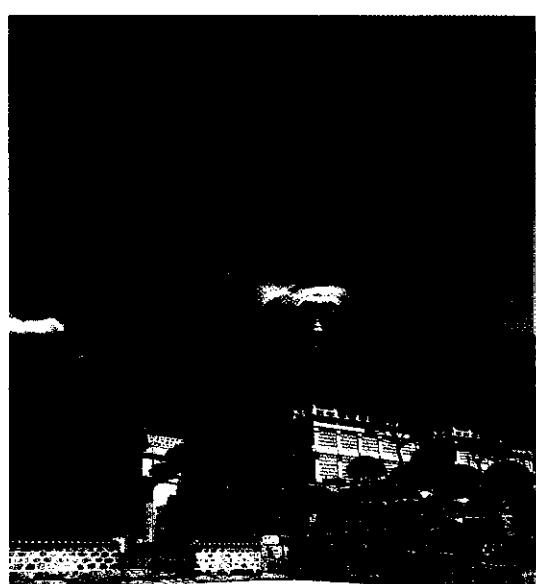
안내 진천군 문화체육과 043-539-3621 [www.jincheon.go.kr](http://www.jincheon.go.kr)



길상사



역사테마공원



보탑사

## 문화축제

8월 | 농다리축제

10월 | 생거진천화랑축제

10월 | 관상어품평회, 생거진천쌀축제

**농다리축제** 소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움은 물론 조상의 습기를 배워가고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인 농다리를 테마로한 이색적 축제이다.

**생거진천 화랑축제** 진천군 최대의 문화축제로 전 군민이 한마음으로 민속예술경연대회, 쌔름왕선발대회, 지역동아리 공연 등이 개최된다.



생거진천 화랑축제



농다리축제



생거진천 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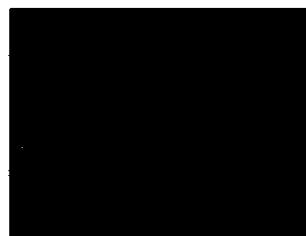
## 농산물과 전통음식



생거진천쌀



관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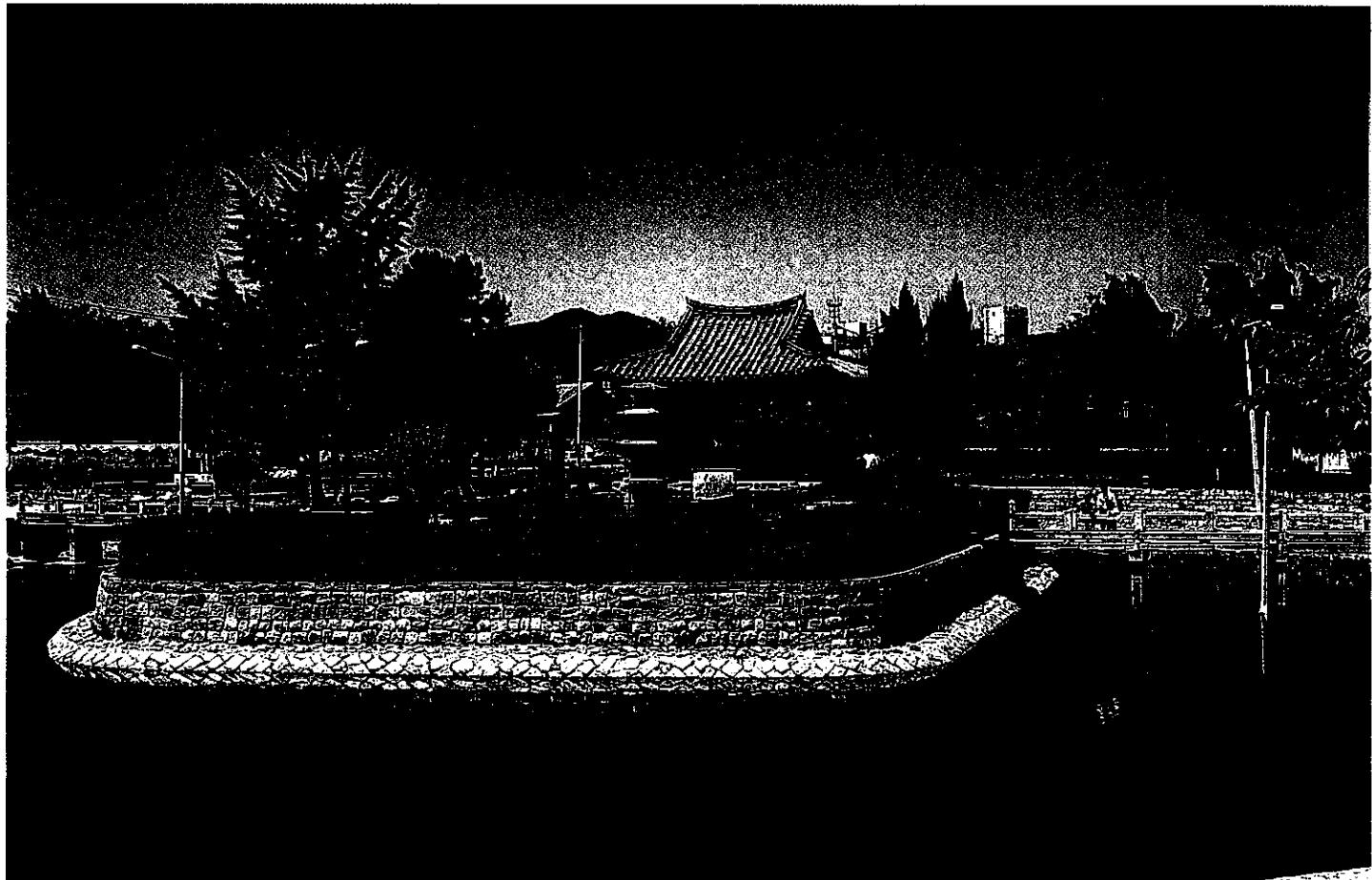
장마



초평 봉어찌



옹봉탕



설성공원

## 평화롭고 인심좋은 풍요의 고장 – 음성

우리 충청도의 말씨처럼 덤덤하고 묵묵하며, 평화롭고 인심이 넉넉합니다.  
사회복지 시설로 잘 알려진 꽃동네와 무극전적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안내 음성군 문화공보과 043-871-3061 [www.es21.net](http://www.es21.net)



수레의 산



조각공원



봉학골삼림욕장



4월 | 무영제, 전국품비축제

7월 | 맹동·대소수박축제

8월 | 헛사레김곡복승아축제

9월 | 설성문화제, 청결고주축제

설성문화제 豊土문화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198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음성군의 최대문화행사이다.

전국품비축제 풍차와 해학으로 선과 지혜를 표출하며 비애와 한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소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배움으로써 자기 성장을 통한 나눔으로 공동체의 두레 정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축제임.



설성문화제



전국품비축제



헛사레김곡복승아축제



음성고추



인삼



장호탕



햇사레복승아



해물 순두부 전골



난계의 음악처럼, 자용의 시처럼-

속세를 떠나, 난계의 음악처럼,  
자용의 시처럼, 금강따라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곳,  
남부권 문화관광

보은 속리산에는 속세를 떠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영동에는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과일나라'라고 불릴 만큼 과일이 많으며,

난계예술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악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금강의 맑은 물결은 옥천에서 옥토를 일구고 대청호의 푸르름을 더욱 짙게 합니다.

시인 정지용은 끝내 옥천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향수'를 노래하였습니다.

● 보은

● 옥천

● 영동



속리산

## 온온한 솔향과 가람문화가 어우러진 곳 – 보은

수많은 문화유적과 높이 33m의 금동미륵대불이 있는 속리산 법주사는 전국 제일의 사찰로 속리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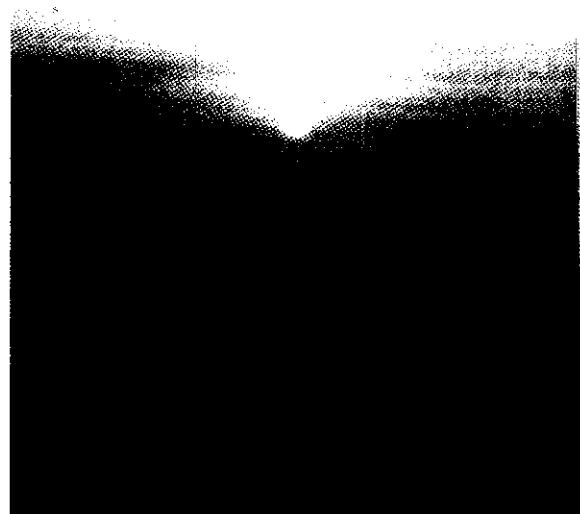
안내 보은군 문화관광과 043-540-3391 [www.boeun.go.kr](http://www.boeun.go.kr)



선병국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34호)



삼년산성(사적 제235호)



구병산 일출

## 속리 죽제

10월 | 속리죽제

속리죽제 보을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의 고장으로  
시우고, 속리산의 명승고식을 전국적으로 홍보하  
기 위한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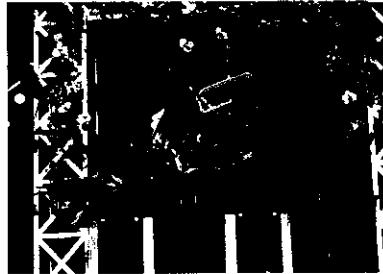
보은군  
Boeun-gun



속리죽제



황토사과축제



단풍가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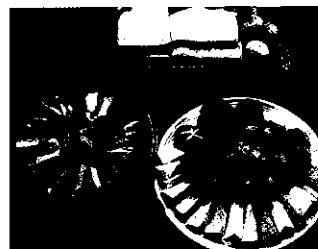


단풍축제

## 복산풀과 향토음식



대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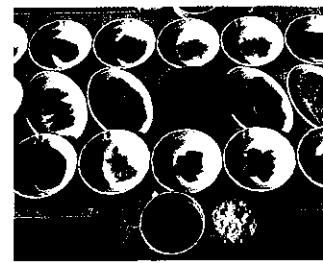
오색 두부전골



토증한방 메기구이



약초나물



속리산 산채정식

# 속세를 떠나 불법이 머무는 곳, 속리산 법주사

삶 자체가 번뇌라고 했던가. 속리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속리' (俗離)라는 말뜻 그대로 번잡한 세속에서 격리되는 유쾌한 유희이다. 굳이 충북알프스(속리산-구병산 43.9km)나 대한팔경 중의 하나라고 들먹이지 않아도 '속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골치 아픈 일상에서 멀어짐을 느낀다. 그래서 그 안의 법주사(法住寺)도 '불법(佛法)이 머무를 만한 곳에 있는 절' 이란 이름을 지었나 보다.

글\_ 이두영

여행작가 '죽기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33' 저자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속리산은 산세가 워낙 빼어나 예부터 왕들이 자주 드나들던 명산이다.

먼 길목인 말티고개는 고려 태조가 법주사로 가기 위해 처음으로 길을 냈다. 곱창처럼 꼬불꼬불한 길이 느림의 미학을 깨우쳐 준다. 역시 법주사 가는 길에 있는 정2품송은 조선 세조의 가마가 지날 때 스스로 가지를 들어올려 쥐 정2품 벼슬을 받은 나무다. 800세 노송이라 늙고 무거운 사지를 쇠기둥에 의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청청한 모습은 옛 선비의 올곧음을 떠올린다.

사내리의 숙박단지에 이르니 관광안내소가 눈에 띈다. 보은으로 시집 온 연변출신 관광안내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준다. 여행의 기쁨이란 단순한 자연감상만이 아님을 새삼 깨닫는다.

매표소를 지나니 짙은 숲이 무한한 천연향을 발산한다. 아기새와 풀벌레들도 청이한 노래로 순님을 맞는다. 법주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오리숲길'은 세상 시름 다 잊게 하는 편안한 산책길이다. 특히 단풍이 들면 선경을 이루는 숲길이다. 도중에는 '호서 제일가람'이라 쓰인 일주문이 있다. 이 문을 넘으면 속세에서 불법의 세계로 넘어감을 의미한다. 이 지점부터는 만사 잊고 편안히 맑은 공기 마시며 몸과 마음을 쉬고 가라는 말이다.

법주사 경내에 들어서자 사천왕문 앞에 키가 25m는 넘어 보이는 전나무가 문지기처럼 있다. 그 뒤에는 국보 제55호인 팔상전이 안정감 있게 서 있다. 5층짜리 목조탑은 가히 예술적이다. 정감이 뚝뚝 배어난다.

저녁어스름이 깔리는 시각, 팔상전 왼쪽의 금동미륵대불은 수정봉 너머로 넘어온 노을을 바라보며 실루엣으로 몸을 낮추고 있다.

팔상전 오른쪽에는 범종각이 있다. 대종이 크게 울리더니 산정을 향해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진다. 대종과 법고를 두드리는 스님들의 동작은 무아지경 속에서 이뤄진다. 관광객들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다. 우렁찬 염불 목탁소리가 울려 퍼진다. 매일 벌어지는 일이지만 방문객에게는 심금을 울리는 퍼포먼스이다.

법주사는 한때 3000승려가 머물던 대찰이다. 마당의 석조와 철획이 이를 증명한다.

석조는 가로 4.46m, 세로 2.40m의 돌통을 물통으로 사용했으며, 철획은 돌레가 10.8m, 높이는 1.2m에 이르는 가마솥이다. 이 거대한 문화재를 보며 1400여년 전의 절 풍경을 상상하는 것 또한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절에서 나와 집단시설지구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청한다. “다른 관광지와 달리 여기는 숙박비 바가지가 거의 없어요” 한 여관 종업원의 자랑이다. 이튿날 아침, 이곳의 대표음식인 산채 비빔밥을 든든히 먹고 산에 오른다. 세심정휴게소까지는 하나의 길이다. 가장 일반적인 코스의 반대 방향, 즉 법주사~세심정휴게소~천황봉(1057m. 최고봉)~비로봉~입석대~신선대~문장대~세심정~법주사 순으로 둘러보기로 했다. 6~7시간 걸리는 산행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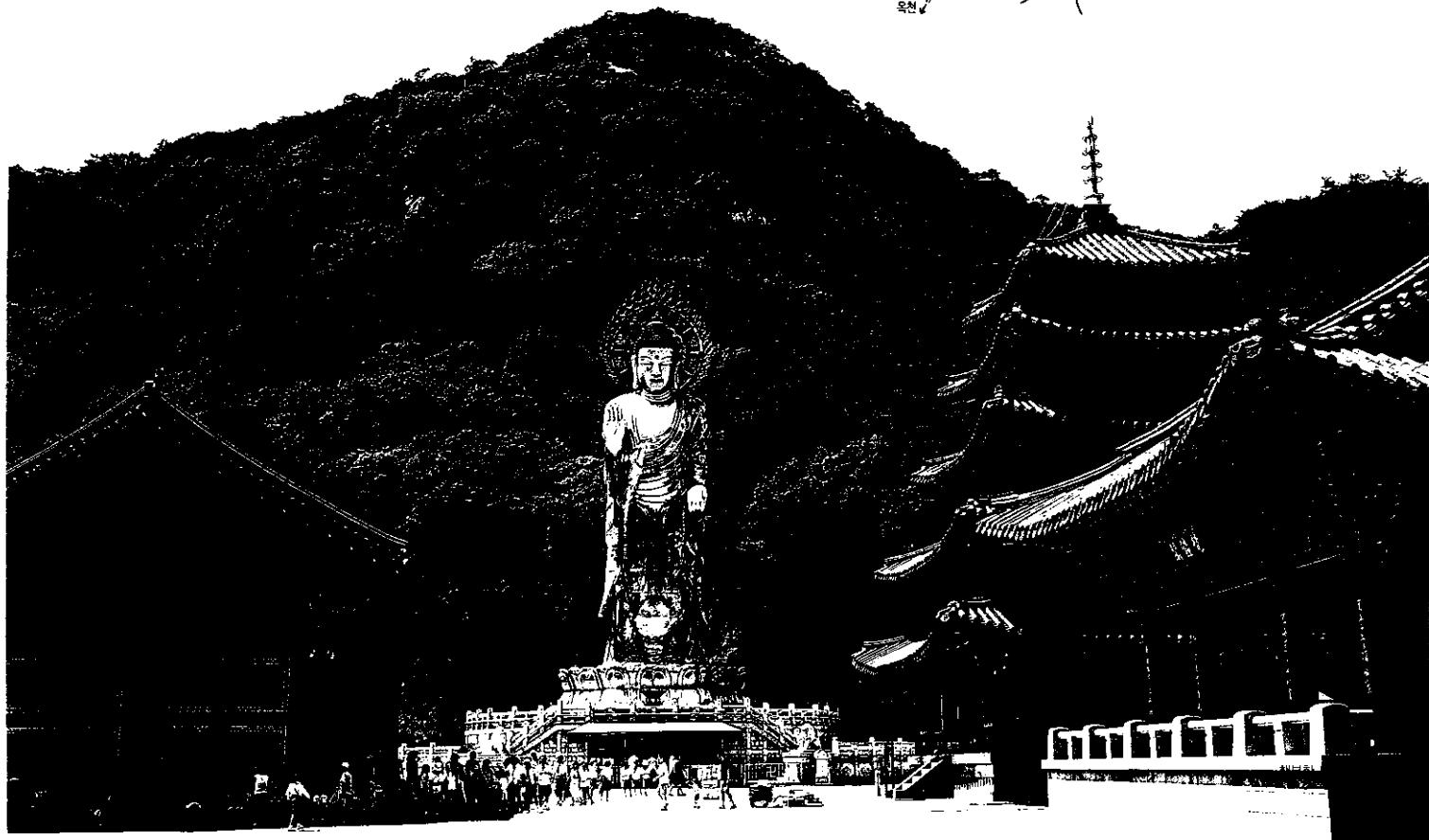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천황봉의 턱밑은 경사가 가파라서 문장대 쪽으로 먼저 오른다. 천황봉 쪽은 물 마실 데가 거의 없지만, 문장대~세심정 구간에는 곳곳에 휴게소가 있다. 봉우리 하나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려면 문장대 코스가 좋다. 문장대까지 약 2시간 30분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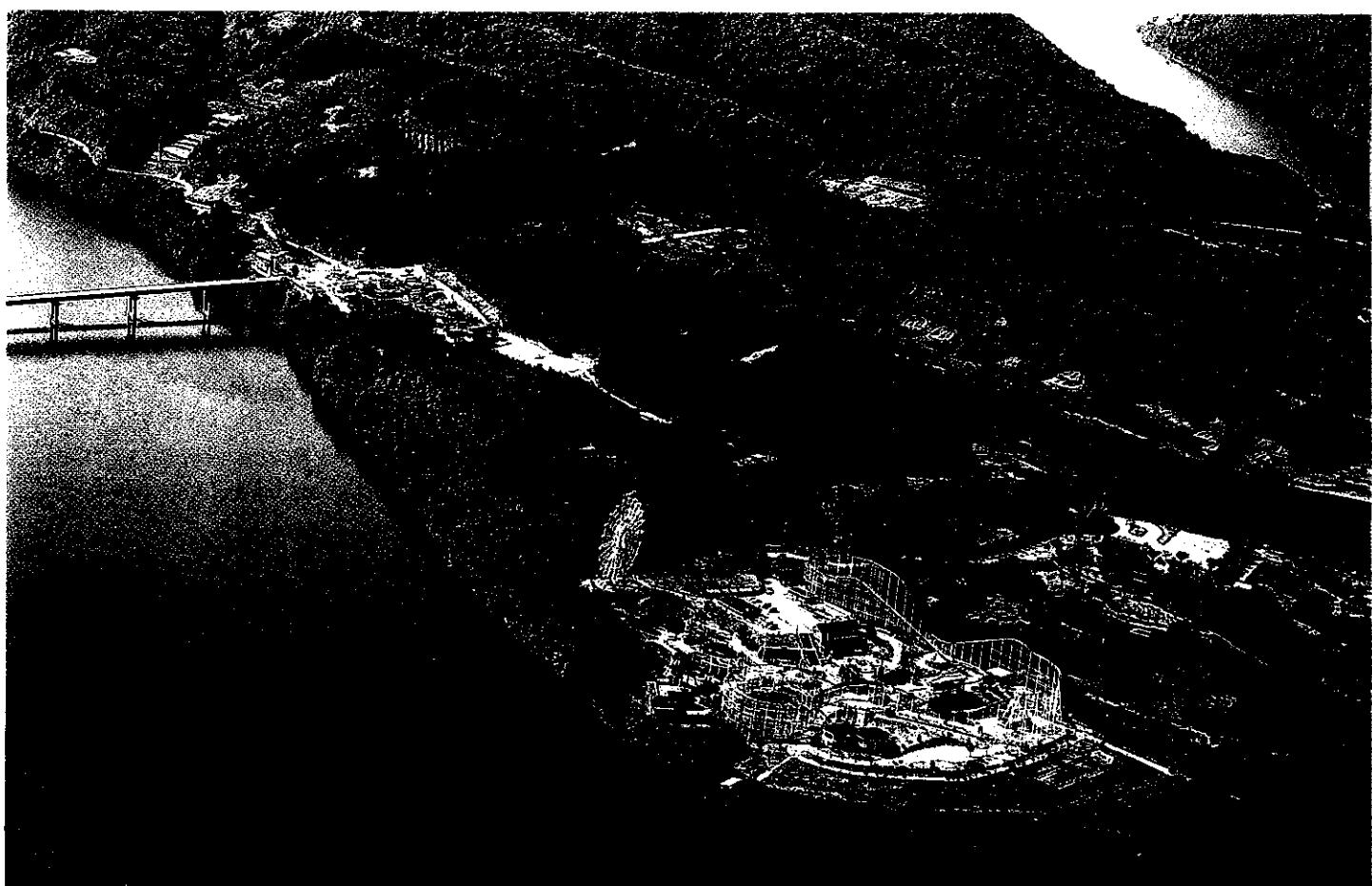
천황봉 쪽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다. 거친 껍질에서 세월의 두께가 느껴지는 노목과 야생화, 작은 폭포 등을 감상하며 약 2시간 만에 능선에 이르렀다. 야생대나무가 빽빽히 자란 능선길의 끝에 드디어 천황봉이 나타난다. 소맥산맥의 장중한 능선들이 겹겹으로 물결을 이루며 파노리마처럼 펼쳐 진다. “식사 좀 같이 해요.” 함께 산에 오른 부부가 어서 오라

한다. 산에 오면 인간은 누구나 무소유의 경지에 이른다. 굴도 나눠 먹고 함께 야호 소리 지르는 것은 더불어 삶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천황봉에서 문장대까지는 해발 1000m 이상의 봉우리들이 활처럼 이어져 있다. 구름과 맞닿은 문장대는 완전한 돌덩어리이다. 아슬아슬한 철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르면 항상 부는 시원한 바람이 가슴의 땀을 씻어 준다. 해가 이울기 시작하는 서쪽 하늘 아래에 관음봉 묘봉 등이 이어져 있다. 푸른 숲에 바위가 촘촘히 박힌 모습이 꽃등심처럼 곱다.

발길은 다시 천천히 법주사로 향한다. “눈 내릴 때 와서 팔 상전 한번 봐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절동네 사람의 말을 고맙게 들으며 산을 내려온다. 다시 세속으로 나오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금강

## 금강의 물결에 띄운 시심 – 옥천

금강의 맑은 물이 옥토를 일구어 내고 대청호반의 푸르름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낸 곳입니다. '향수'로 유명한 시인 정지용이  
꿈에도 잊지 못하여 향수를 노래한 고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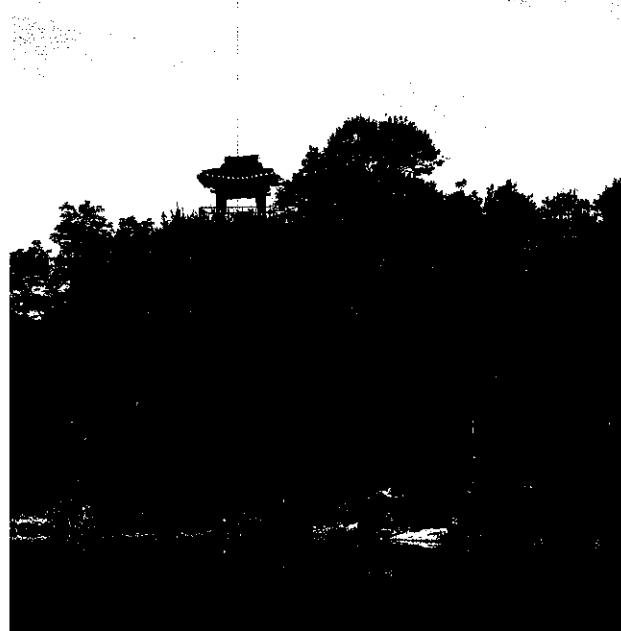
**안내** 옥천군 문화홍보과 043-730-3081 [www.oc.go.kr](http://www.oc.go.kr)



증암사 쌍삼층석탑



정지용 생가



청성 독락정

## 축제

3월 | 이원묘목축제

5월 | 지용제

9월 | 중봉충렬제

중봉충렬제 임진왜란 때 충무 육전에서 의병을 일으킨 충동 조한선생의 후국정신을 기리는 문화축제

지용제 육천이 날은 한국현대시의 가장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매년 5월에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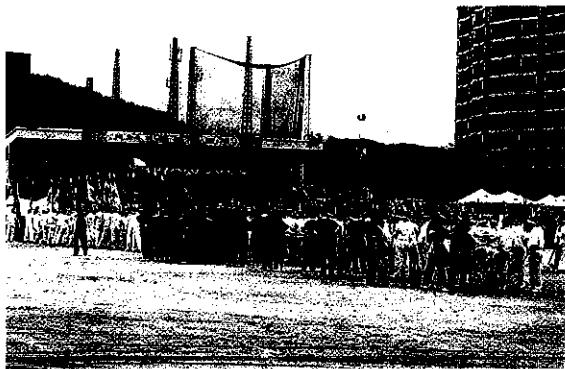
이원묘목축제 이원과수묘목의 특성화방안을 모색하고 70년의 재배 역시를 자랑하는 이원과수 묘목을 전국에 알리는 한편, 고품질 과수묘목의 공동생산, 축하로 지역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와 지역화학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행사.



지용제



정지용 시인 동상



중봉충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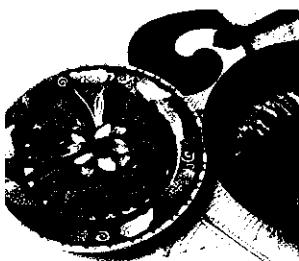
포도



생선국수



인삼매기탕



도리뱅뱅이



한주



민주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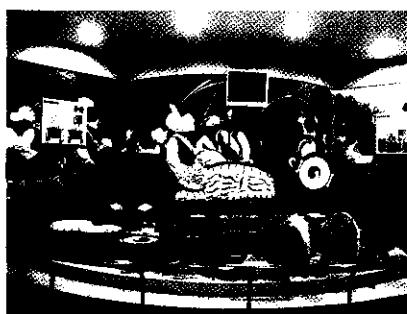
## 과일의 맛과 국악의 멋이 어우러진 – 영동

금강 상류 지역으로 가장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과일나라라고 불리울 만큼 과일이 많으며 또한 난계예술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악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등 국악의 고장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안내** 영동군 문화공보과 043-740-3201 [www.yd21.go.kr](http://www.yd21.go.kr)



백화산 반야사



난계국악박물관



영국사



물한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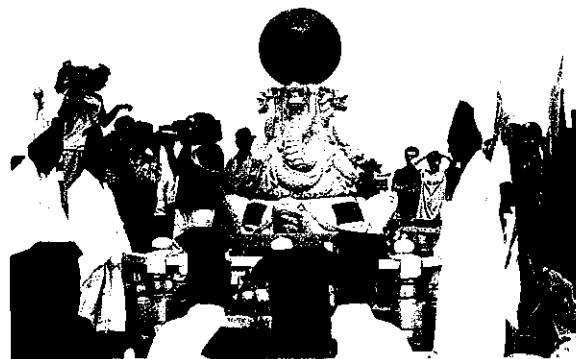
##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축제

8월 | 난계국악축제, 포도축제

10월 | 삼도봉축제

12월 | 꽃감축제

**난계국악축제** 국악의 거성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석 업서를 기리고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매년 열리는 '난계국악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유익한 국악축제이며 민족의 신명이 4일동안 끊이지 않는 전통 국악의 종합 축제임.



삼도봉축제



난계국악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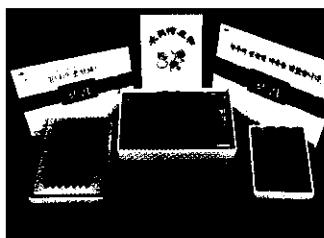


포도축제

## 행사물과 맛집음식



사토마니 포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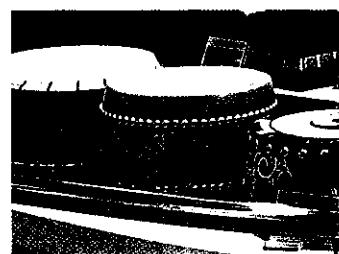
꽃감



마주조림



우렁쌈밥



국악기





시선 머무는 곳마다, 발길 닦는 곳마다 –

## 이 시원한 계절의 충주 한국의 청풍명월의 정수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삼국의 문화가 융합된 중원문화의 발상지 충주는

곳곳에 많은 유적들을 품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인

내륙의 바다 충주호가 있습니다. 청풍명월의 본향 제천에는 소백산맥의 제일경인

월악산, 배론성지, 박달재, 청풍호반 등이 유명합니다.

또한 세상경치가 아닌 듯 신비롭기만한 단양팔경과 충청, 강원, 경상 삼도를 가르는

웅장한 소백산 등 그림같은 고을 단양이 있습니다.

- 충주
- 제천
- 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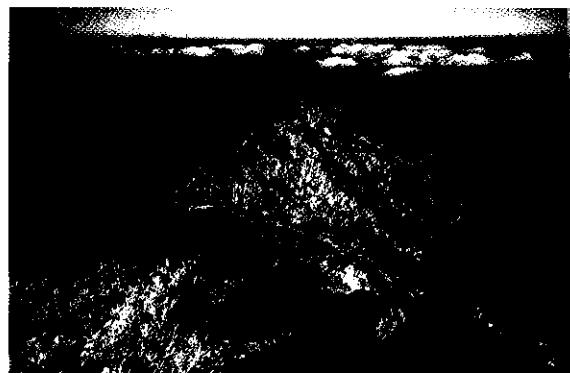


충주호

## 찬란한 중원문화의 발상지 – 충주

한반도 중심도시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문화가 융합된  
중원 문화의 발상지로 곳곳에 많은 유적들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인 충주호가 있으며,  
이곳 충주호에서 유람선을 타고 보는 선상관광은 일품입니다.

**안내** 충주시 관광과 043-850-6721 [www.cj100.net](http://www.cj100.net)



월악산



충렬사



미륵리사지



중원탑(중원타평리칠층석탑)

## 충주문화축제

4월 | 수안보온천축제

8월 | 복승아축제, 충주호수축제

9~10월 | 양성온천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우륵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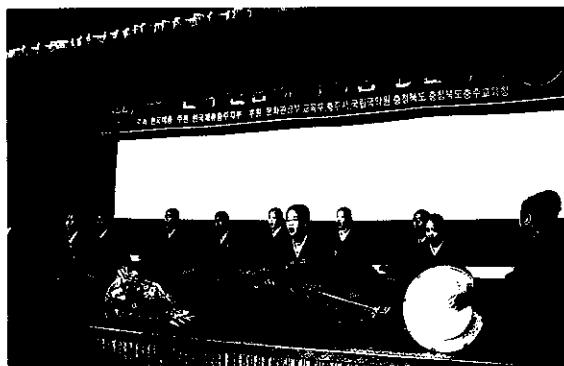
10월 | 충주사과축제, 밤축제



시과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우륵문화제

## 충주문화축제



충주사과



평사보사브



붕어찜



한과



청풍호반

## 맑은 물, 푸른 숲, 청풍명월의 도시 – 제천

남한강 상류 지역으로 천혜의 관광자원, 내륙의 바다 청풍호반과 소백산맥의 제1경 월악산, 배론성지, 박달재 등 관광명소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안내 | 제천시 관광팀 043-641-5131 [www.okjc.net](http://www.okjc.net)



제천의 봄



한벽루



용담폭포

**축제**

- 1월 | 의림지 겨울축제  
 4월 | 청풍호반 벚꽃축제  
 8월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월 | 금수산 산악 마라톤대회  
 10월 | 제천의병제, 박달가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영화와 음악을 결합한 이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휴양 영화제

**의림지겨울축제**

빙어리고도하며 투명한 색채를 띤 공어의 최초 서식지가 의림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서 공어 낚시대회, 공어 빨리 먹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청풍호반벚꽃축제**

벚꽃 만개시기인 4월 중순경 청풍호반을 끼고 굽이굽이 13km의 관광도로에 피어있는 벚꽃을 소재로 하여 청풍소새지에서 일주일동안 열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의병제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의림지겨울축제

**제천과 맛과 음식**

제천약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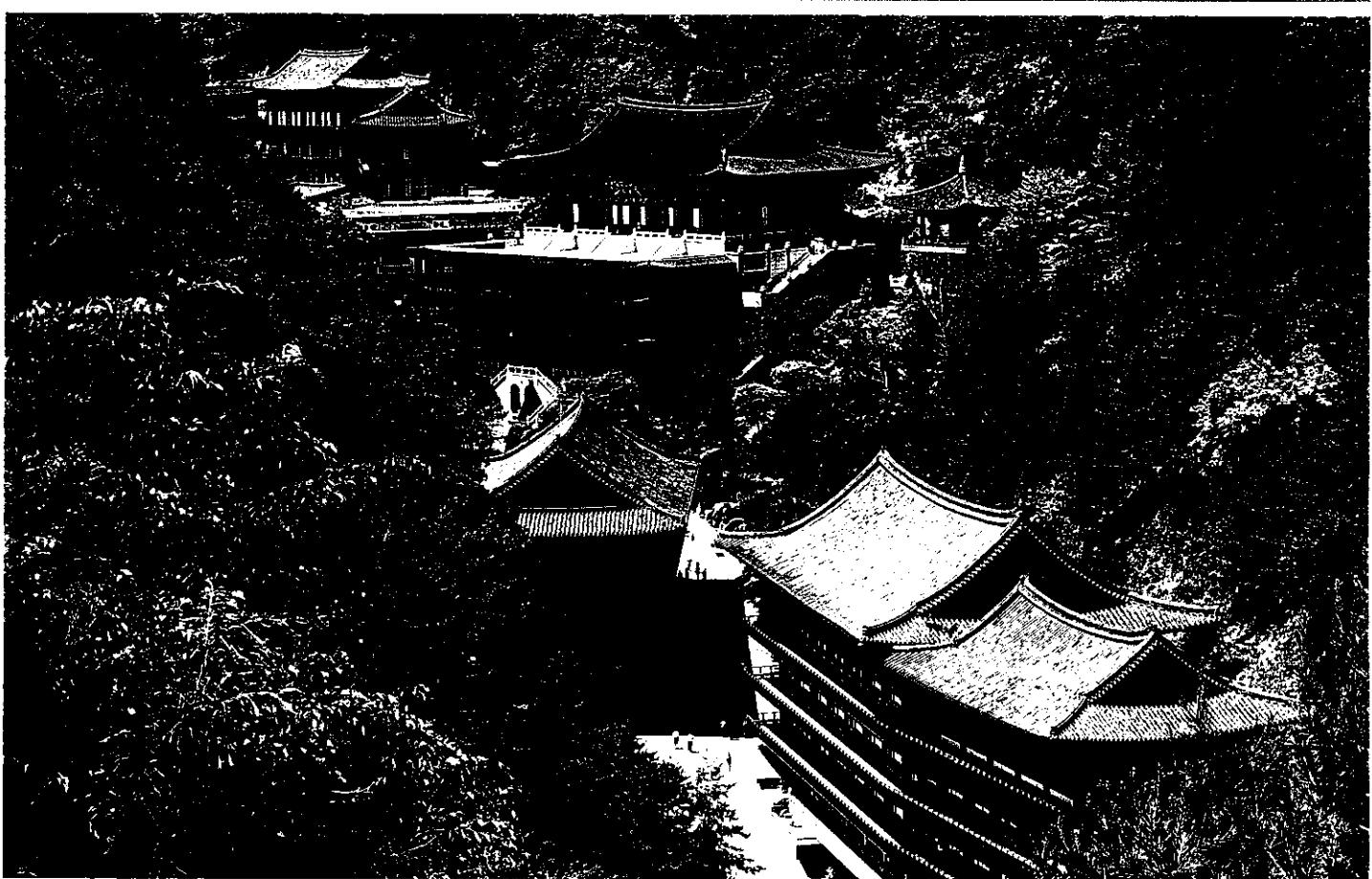
도토리묵 무침



소가리매운탕



최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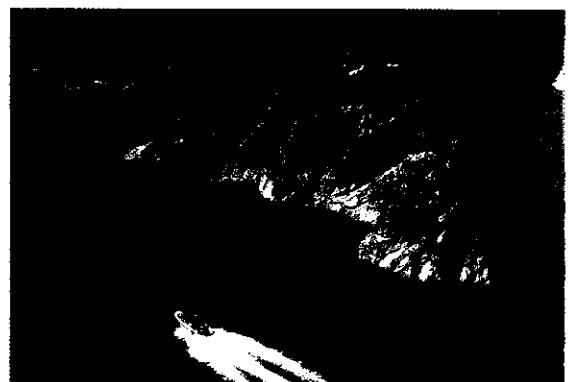


구인사

## 가는 곳마다 한폭의 단아한 동양화 – 단양

세상경치가 아닌 듯 신비롭기만한 단양팔경과 충청, 강원, 경상도를  
가르는 웅장한 소백산 등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안내 단양군 문화관광과 043-420-3544 [www.danyang.chungbuk.kr](http://www.danyang.chungbuk.kr)



도담삼봉



구담봉



온밀동굴



고수동굴(천연기념물 제256호)

## 단양 축제

- 1월 | 소백산 해맞이 등반대회
- 2월 | 단양전통 연날리기대회
- 4월 | 삼봉문화축제
- 5월 | 소백산 철쭉제
- 7월 |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
- 8월 | 방곡장작가마 예술제, 어상천수박축제
- 10월 | 온달문화축제, 금수산 김골 단풍축제

단양을 찾는 관광객을 통해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연분홍철쭉이 온 산야를 덮은 소백산과 단양을 일원에서 철쭉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철쭉꽃길 걷기 대회를 비롯한 철쭉여왕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소백산 철쭉제와 가을에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온달과 평강의 사랑이야기를 소재로 한 온달문화 축제가 열린다. 그 외에도 지역 특산물 특판을 위한 단양마늘 5일장과 방곡장작가마 예술제, 어상천 수박축제 등 연중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소백산 철쭉제



온달문화축제



단양마늘5일장



방곡장작가마예술제

## 단양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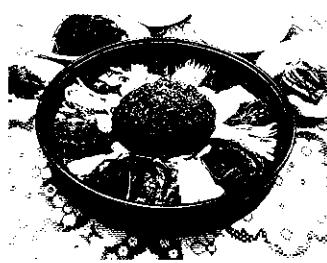
단양 유풍미늘



산채비빔밥



영춘 자식벼루



신채도토리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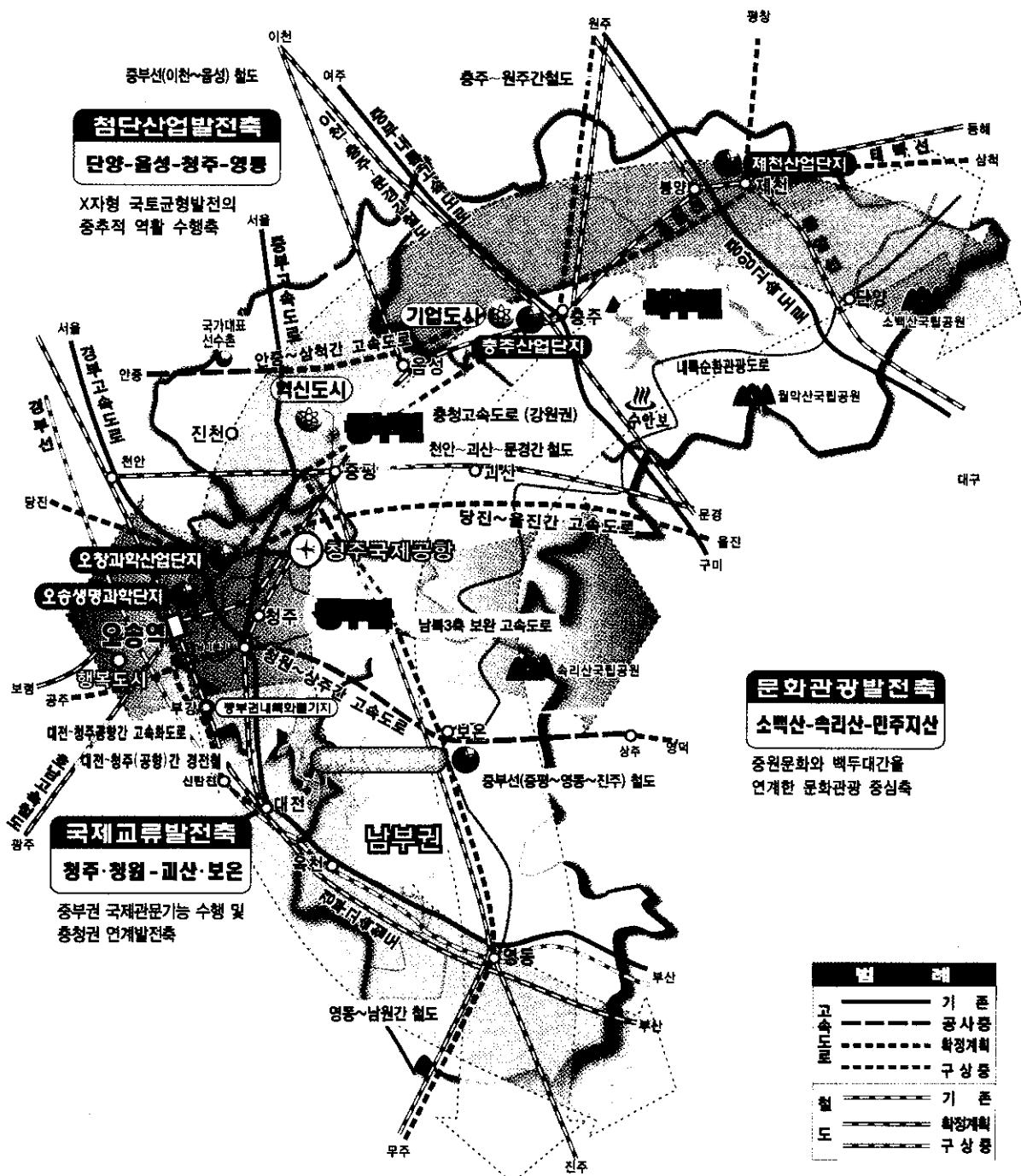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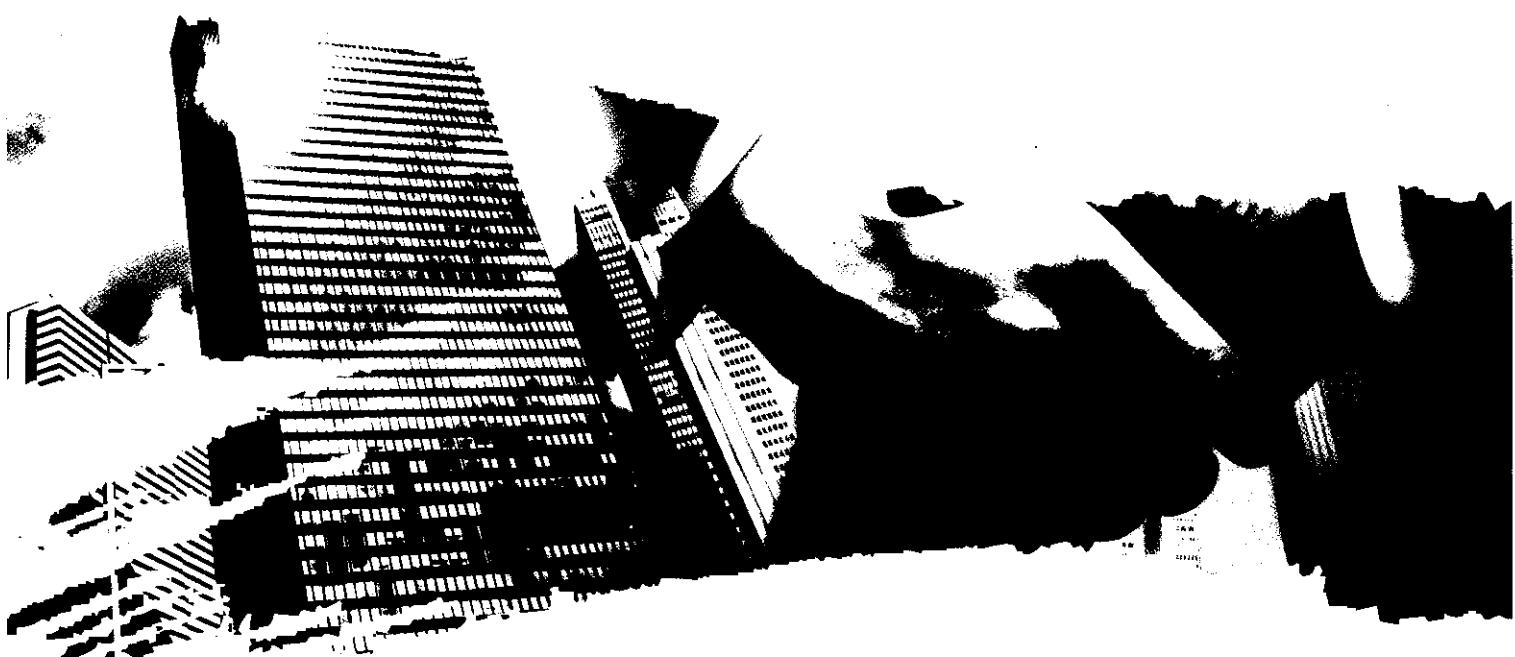
소백산더덕



중원문화와 국토의 중심에서 꿈과 비전을 키워온 충청북도,  
경제, SOC, 첨단산업, 교육, 문화관광 등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감동의 충북을 만들것입니다.  
잊을 수 없고 잊혀질 수도 없는 명품 도시브랜드  
경제특별도 충북이 될 것입니다.

## 21C 충북발전구상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Tel. 043-220-2111 Fax. 043-220-2119 [www.cb21.net](http://www.cb21.net)